

보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10

2021 October
Vol.545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Contents

2021 October
Vol.545

시선이 닿다

일상을 펼치다

세상을 품다

소식이 오다



COVER STORY

교정공무원들은 코로나19 등 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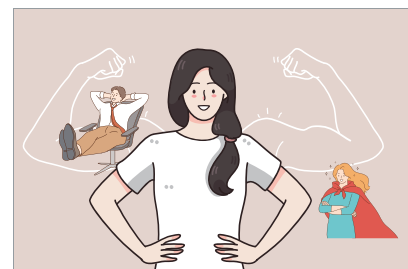
교정 ZOOM IN 서울동부구치소	04
생각의 방향 나와 당신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경청과 대화	10
지금, 이 사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자 이호 교수	12
별별 알고리즘 관계의 벽을 허물어 주는 대화의 기술과 공감의 언어	16



부캐를 부탁해 스포츠클라이밍 입문기 소망교도소 주임 배송철 · 주무 정동영 · 담당 이성우	18
선배에게 듣다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중	22
교정인 원픽 헌신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다	26
힐링 메신저 옛 백제 왕도의 흔적 사이를 거닐다 서울 송파구	30
지구 초대석 지구와 우리의 내일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	34
물음의 소통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	36



관계 반창고 상대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진정성 소통법	38
알쓸꿀잡 가을철 야외 활동 안전 수칙 편	40
머니 레시피 금리 변동에 따른 슬기로운 금융생활 팁	42
인문학 살롱 너희가 '스트리트'를 아느냐?	44
오늘의 건강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다리' 건강 이야기	46



교정 이모저모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48
대나무숲 일기 1 주임님, 꼭 살아 내세요	50
대나무숲 일기 2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52
교정 리포트 질적 연구를 통한 전임 교종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②	54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독자 퀴즈 및 이벤트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10월호 Vol.545
www.corrections.go.kr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서울동부구치소

지난겨울, 코로나19로 더욱 혹독했던 서울동부구치소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교정공무원의 이야기가 고즈넉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막아 낸 코로나19 확산 위기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불안해하는 수용자들을 돌보며, 교정시설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체계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위기를 이겨 낸 경험을 발판 삼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며 더욱 안전한 교정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스마트관제센터, 원격의료센터, 심리치료실, 가족접견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경청과 대화

태평양 깊은 바다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리는 고래가 있습니다. 이 고래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고래들과 주파수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고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수십 년 동안 혼자서 망망대해를 헤엄치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 곁에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외로운 고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잣말이 아니라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말이 어딘가에 부딪혔다가 메아리처럼 그냥 돌아오는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꼬마가 있습니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나오는 주인공 꼬마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 꼬마는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따뜻한 관심과 반짝이는 눈빛, 공감의 끄덕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 줍니다. 모모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후련해합니다. 그들이 모모를 사랑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미국의 항공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면접시험장에서 지원자들은 몇 명씩 조를 나눠 주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면접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은 발표자가 아니라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발표자의 말을 얼마나 주의 깊게 경청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공감을 전하는지 살펴 봅니다. 합격과 탈락의 경계에 선 중요한 순간,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발표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발표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를 중요시하는 사람일 거라고, 잘 듣고 잘 이해하려는 마음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맹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들이 넘치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바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말은 서로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벽에 부딪힌 말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하죠.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주는 것 역시 '말'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상처를 대화로 풀었던 '속마음 버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조한 버스가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대화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탈 수 있지만, 대화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3분짜리 모래시계를 옆에 둡니다. 그 시간은 오롯이 말하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모래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상대방은 끼어들거나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닫혀 있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아버지,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주부, 엄마의 아픔과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딸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보여 준 경청과 공감, 그리고 이해는 다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정현종 시인은 '경청'이라는 시에서 말합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 경청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듯. / 비극의 대부분은 / 경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듯. / 아, 오늘처럼 / 경청이 필요한 때는 없는 듯. / (중략) / 무슨 소리가든지 간에 / 내 안팎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알면 / 세상이 조금은 좋아질 듯."

우리 사회의 불행이 경청하지 않는 데 있다면 반대로 행복은 경청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 줄 때 나와 당신의 이야기는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의 말들은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줍니다.

죽은 자의 메시지에서

교훈을 찾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자 이호 교수

교도소와 같은 집단 격리 시설에서의 사망은 법의학자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마무리된다.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법의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죽음에 담긴 진실을 규명하고, 그 죽음이 남긴 메시지를 경청해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훈을 찾는 일. 그것이 법의학자인 이호 교수가 추구하는 진정한 법의학의 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질 때 꼭 필요한 절차



법의학자 이호 교수

전북대학교에서 의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해 2004년부터 동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실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법원행정처 법의학 전문심리위원, 대한 법의학회 학술이사,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법의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의학이 우리 사회를 면면히 살펴보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를 뒤돌아보며 실수나 과오를 되새기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행동일 것이다. 이호 교수는 법의학 또한 단순한 한 사건의 부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해 경찰청 과학수사 등 여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이호 교수는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법의학자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법의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전라북도 1호 법의학자'로서 전북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부검을 전담하고 있다. 이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변사 의심이 있을 때만 부검을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 죽음이 자칫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대부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변사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객관적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원 불상자의 사망 사건이나 요양 병원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건과 안전사고는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합니다.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육하원칙을 찾아서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사인 불명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호 교수는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교도소나 군대와 같은 집단 격리 시설 내 사망은 부검을 진행하지만, 일반적 사건은 변사 의심이 있어야만 법의학자에게 사건이 인계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사망했을 때 해당 죽음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은 다음 사망 진단서를 떼고 화장·매장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화장·매장이 끝난 후 사망 신고를 하는 우리나라의 사망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법의학이 가해자나 피의자를 기소하는 증거로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발부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도 사망 원인을 육하원칙으로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합니다. 강력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이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똑같은 사건을 예방하고,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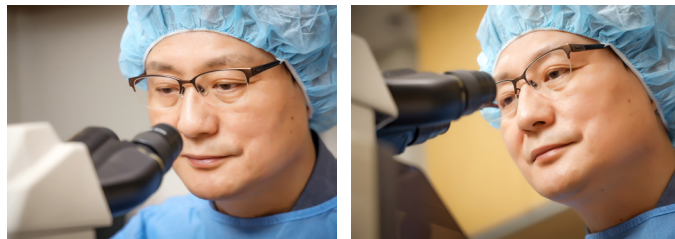


경청하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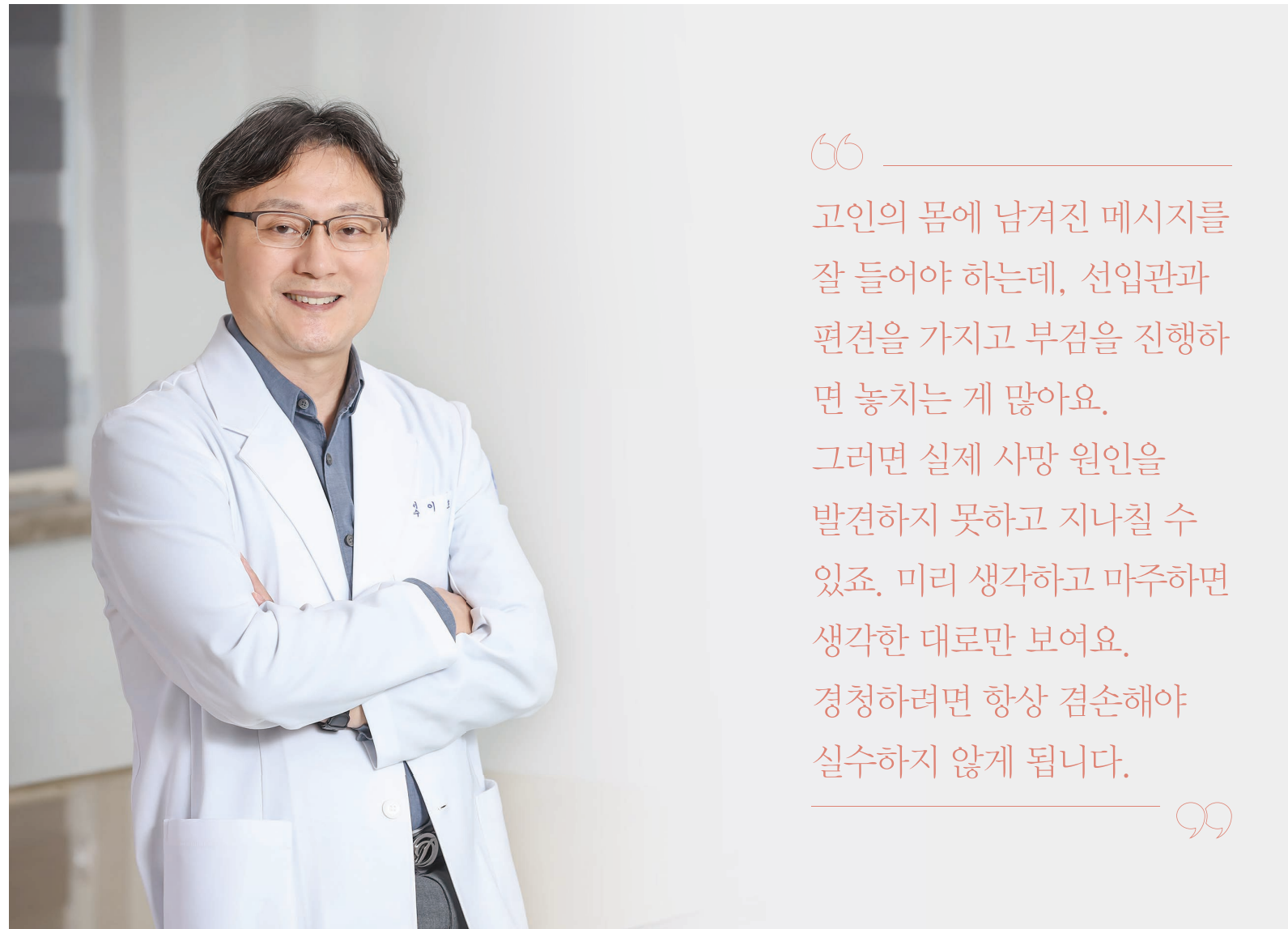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회가 되려면, 그 이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사회 시스템 재정비다. 한 사람의 죽음이 각각의 에피소드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런 죽음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를 따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호 교수는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범죄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범죄 비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파도가 쳐도 맨 앞에서 그 파도를 온전히 맞아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범죄를 두둔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해요.”

이호 교수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못지않게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가 생기는 것은 물론, 수용자들도 사회를 적대시하지 않고 융화될 수 있다고 말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 필요한 것이 ‘경청’이라고 이호 교수는 덧붙였다.



“고인의 몸에 남겨진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하는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부검을 진행하면 놓치는 게 많아요. 사건 서류를 읽고 예단하는 경우, 나도 모르게 그 흔적만 찾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사망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죠. 미리 생각하고 마주하면 생각한 대로만 보여요. 경청하려면 항상 겸손해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고인의 몸에 남겨진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하는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부검을 진행하면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실제 사망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죠. 미리 생각하고 마주하면 생각한 대로만 보여요. 경청하려면 항상 겸손해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법의학자와 교정공무원

법의학자로서 이호 교수는 안타까운 사건을 자주 만난다. 이미 일어난 일이지 돌이킬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살펴본다면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도 있을 터.

“자살하는 사람은 보통 유서가 있지만, 타살로 의심할 만큼 죽음에 대해 천천히 집요하게 준비해요. 만약 교정시설에서 자살에 대한 징후를 알아보려면 신체검사를 할 때 자해와 같은 흔적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또 시도할 수 있으니 특별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호 교수는 법의학자와 교정공무원의 공통점이 사회문제를 가장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법의학자가 고인의 몸에 남겨진 메시지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다 보면 사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교정공무원도 수용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바꿔야 할 여러 시스템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경청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학자와 교정공무원은 가장 선두에서 있는 직업이 아닐까.

“법의학자로서 고인이 된 사람의 죽음에 책임은 없지만, 다음은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미 벌어진 일에서 교훈을 찾는 사회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떠난 사람이 온몸으로 보여 준 메시지를 대신 이야기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죠.”

1997년 법의학을 시작해 어느덧 30년 가까이 한길을 걸어온 이호 교수. 그는 학생들이 휴머니스트로서 자질을 갖춰 나가도록 인도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너무 전문적인 지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과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말이다.

“진정한 개혁은 미래 사회와의 대화 같아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힘 있는 계획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제 꿈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네에 병원이 생기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법의학자를 넘어 사회의학자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게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벽을 허물어 주는

대화의 기술과 공감의 언어

관계를 이어 주는 대화

- 폭력적 대화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 평화적 대화의 지름길은 평가가 아닌 관찰하기
- 대화에 담긴 상대의 마음을 읽어 보기
-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 이어 가기
- 진심을 담아 자신의 내면을 보여 주기



현대인의 생활에서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화 기술은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로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생긴 벽을 허물고 싶다면, 자신이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의 방식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바꿔 보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공감 언어의 힘

- 상대방 언어의 뜻을 이해하자
-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 이야기하자
-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살펴보자
- 듣는 것에 먼저 집중해 보자
- 몸짓을 통해 공감하는 모습을 전달하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과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스포츠클라이밍 입문기

소망교도소 주임 배송철·
 주무 정동영·담당 이성우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 순발력과 정확성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것, 잠깐의 방심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 체력 못지않게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것 등. 스포츠클라이밍은 여러모로 교도관과 닮은 점이 많다. 소망교도소에서 소위 ‘운동 좀 한다’는 세 교도관이 스포츠클라이밍 도전에 나섰다.

※ 10월호 ‘부캐를 부탁해’의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교육을 단독으로 예약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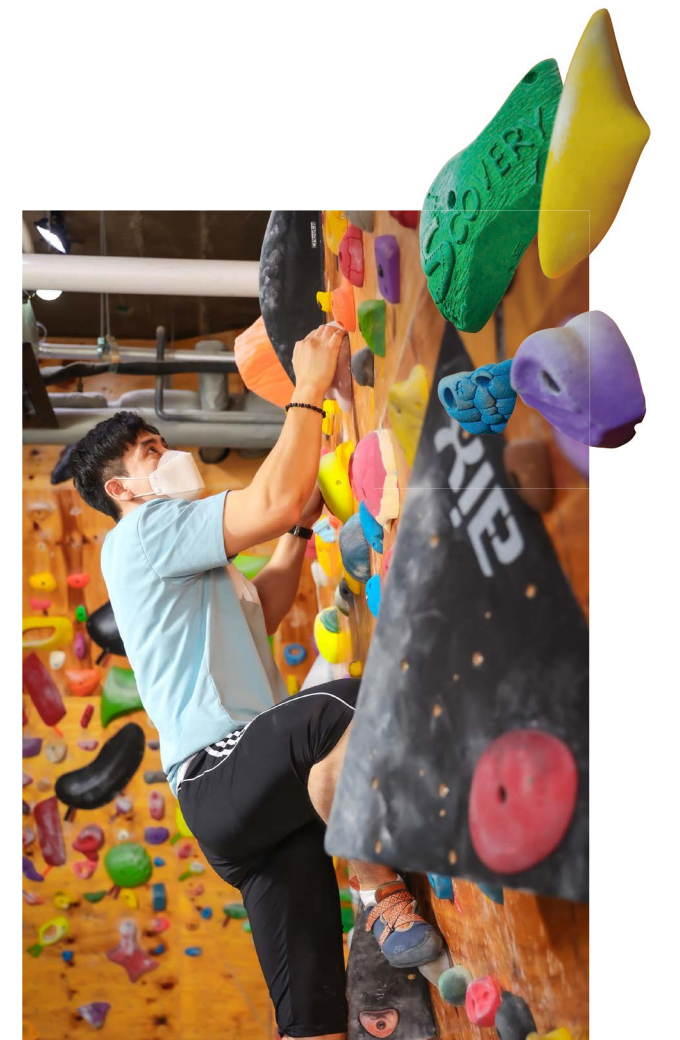
새로운 스포츠 도전에, 소망교도소 홍보는 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가 결정된 한 달여 전, 소망교도소는 오랜 만에 기분 좋은 긴장감과 설렘으로 들쭉였다. 소망교도소를 대표해 스포츠클라이밍 도전에 나설 교도관을 뽑는 과정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이벤트였던 것. 최종 3인은 철봉 오래 매달리기(체력)와 사다리 게임(행운) 등의 예선전 끝에 선정됐다. 나름 엄격한(?) 과정을 거친 건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은 기본이고, 여기에 소망교도소 홍보대사의 임무까지 살짝 엮어진 까닭이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경기도 여주에 개칭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 교도소입니다. 운영 주체는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아가페 재단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운영 감독을 받고 있어요. 전국의 법무부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소개로 말문을 연 배송철 주임은 총무과에서 정책과 예산 업무를 맡고 있다. 함께 체험에 참여한 정동영 주무는 총무과에서 보관품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성우 담당은 보안과 CRPT(기동순찰대)에 소속돼 있다. 하는 일은 각기 달라도 교도소 내 피트니스센터에서 결속을 다져 온 이들은 소망교도소에서 운동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배송철 주임이 러닝을 즐긴다면 정동영 주무는 체육 교사를 꿈꿨을 만큼 종합 스포츠맨으로 통하고, 이성우 담당은 맨몸으로 하는 웨이트에 진심인 편. 운동에 관한 한 저마다 필살기 하나쯤 거뜬하게 품은 이들이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을 위해 여주의 한 스포츠클라이밍센터에 모였다. 세 사람의 눈빛에는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도전이 불러온 반짝이는 호기심과 그동안 단련해 온 운동 마니아로서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스포츠클라이밍이라는 신세계 경험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클라이밍은 건물 벽면이나 암벽을 본뜬 합판 등의 구조물에 인공 홀드를 설치해 놓고 손과 발만을 이용해 벽면을 따라 이동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근육을 고루 사용해 운동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근력과 순발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은 물론 정신력을 굳건히 하는 데도 유익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자연 암벽등반과 비교해 쉽고 안전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완등 시 짜릿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클라이밍의 매력은 소망교도소 세 교도관이 이날 체험을 통해 기대하는 바이기도 할 터. 대부분의 운동이 그러하듯 스포츠클라이밍도 실전에 앞서 이론교육을 통한 워밍업으로 시작했다.

이론교육을 받으며 스포츠클라이밍과 한층 거리를 좁힌 이들이 본

격적으로 체험한 건 스포츠클라이밍 3대 종목인 리드(Lead), 볼더링(Bouldering), 스피드(Speed) 중에서 리드와 볼더링. 클라이밍 슈즈로 갈아 신은 이들은 먼저 리드 종목 전용 암벽으로 이동했다. 스포츠클라이밍 중에서도 리드는 가장 많은 홀드를 터치하면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다.

첫 주자는 군대 유격 교관 시절 암벽등반이 훈련 코스 중 하나였다는 배송철 주입이었다.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어도 간접경험을 한 만큼 자신감이 남달랐던 그는 몇 번의 위기는 겪었을지언정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터치했다. 이어진 정동영 주무와 이성우 담당의 도전 과정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포츠클라이밍을 처음 접한 정동영 주무와 법무연수원에서 기동순찰대 교육을 받을 때 연수원 내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해 본 적 있다는 이성우 담당 모두 박수를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체험을 마쳤다.

물론 운동에 관한 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높은 만큼 “수직적으로 가까운 거리라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 홀드 하나를 딛고 잡는 데도 디테일한 기술이 필요하고 몸이 무겁단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라는 배송철 주입의 소감에 두루 공감했다.



몸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스포츠

리드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로 체험한 종목은 볼더링. 리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게 높이 올라가느냐가 관건이라면, 볼더링은 지정된 홀드만을 사용해 톱(top) 홀드까지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물의 난이도가 제각각이라 문제를 풀어 나가듯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대신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중간에 실패해도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리드 체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로 볼더링 도전에 나선 이들도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리드와 달리 볼더링에서는 누구도 완벽한 완등에 도달하지 못했다. 볼더링 체험은 시간제한이 없어 세 사람의 입에서 “한 번만 더 해 볼게요”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마침내 체력이 바닥났을 즈음에야 끝났다. 아쉬움을 털고 이성우 담당이 먼저 소감을 밝혔다.

“단순히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스포츠클라이밍 코스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볼더링 문제 풀이에 끝내 실패해서 아쉽지만, 오랜만에 동료들과 땀 흘리며 승부욕과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던 정동영 주무는 이번 체험을 통해 스포츠클라이밍과 교도관 업무의 닮은 점을 발견했다며 말을 이었다. “손끝, 발끝까지 강한 힘과 순발력도 중요하지만 홀드를 옮겨 갈 때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내디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



승부욕과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어요!



짜만 빼끗하거나 방심해도 미끄러지고 떨어지기 일쑤란 점에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교도관 업무와도 비슷한 데가 많다고 생각했죠.” 배송철 주입은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을 통해 새삼 겸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체험을 앞두고 팔이나 등 근육 위주로 단련에 집중했는데, 막상 해 보니 평소 힘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던 발가락과 손목이 가장 아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를 갖고 사는데, 안 쓰는 근육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올라가는 커녕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체험이 있었어요.”

‘클라이밍은 멘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클라이밍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스포츠’로 통한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몸이 경직되면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을 통해 이를 체감했을 소망교도소 교도관 3인이 기본기인 체력에 굳건한 정신력까지 겸비해 지금껏 그래 왔듯 앞으로도 민영 교도소의 모범을 만들어 가길 소망해 본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대화에 진심을 담으면

마음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김중(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교감)
대화는 소통의 첫걸음이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기는커녕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다. 좋지 않은 일로
교정기관에 온 수용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김중 교감은
후배들에게 '대화에 영혼을 담으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싹튼 믿음은
모두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김중 교감입니다. 2007년 분류직 7급 공채로 임용된 뒤 강릉교도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용자 상담, 심리 분석, 사고 위험성 파악 등의 업무를 맡다가 직렬이 통합되면서 보안과로 적을 옮겼습니다. 2014년 서울동부구치소의 전신인 성동구치소로 옮겨 온 뒤 보안과, 분류심사과 등을 거쳤고, 교감 승진 후 당직교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교정공무원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 중점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의 업무와 행동은 나의 과거가 되고, 그 과거를 통해 미래의 모습이 형성되니까요. 더불어 잠시 스쳐 가는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대화에 나선다면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해 나와 상대의 내일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현재'와 '소통'이 저의 삶의 철학이자 업무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동료 및 선후배들과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 특히 어떤 부분에 신경 쓰나요?

우리는 흔히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꾸 영혼 없이 대화할래?"라고 핀잔을 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은 단지 '진심 담긴 대꾸'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눈빛, 표정, 몸짓, 적극성, 분위기 등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 주는 모든 것이 '영혼'에 해당됩니다. 대화에 영혼을 담으면 누구든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씀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이 조금 서투러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그 안에 단순한 말씀씨를 넘어서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이러한 대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통화나 문자메시지로는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 힘들고, 영상통화도 서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상대의 마음에 닿기 위해 대화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Q. 유독 기억에 남는 '선배의 한마디'가 있나요?

한 선배님이 수용자 인성 교육 중에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국화이자 매화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가을과 겨울이 되면 우리의 꽃은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지만, 곁에서 듣고 있던 저도 마음이 찡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 내 꽃이 필 때까지 충실하게 살아 보자!’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죠.

Q.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는 어떤 점에 집중하나요?

가장 신경 쓰는 점은 ‘평정심’입니다. 짜증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기 힘들죠. 그럴 때 수용자도 저와 대화할수록 흥분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불화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수용자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바라며 최대한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또 사전에 수용자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인이나 동료와 대화할 때는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지만, 수용자는 우리가 교화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자가 어떤 성격이며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평소 호소하는 고충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용자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털어 놔도 되겠구나’ 하는 첫인상과 느낌을 줘야 진심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평상시 언어 습관을 정갈하게 가다듬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수용자와 나누는 대화는 상담 성격이 강한 만큼,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용자는 웃을 때 진심을 이야기하고, 어떤 수용자는 진지하게 귀 기울일 때 마음을 엽니다. 만약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처음과 다른 대화 자세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용자가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그때그때의 대화에 최대한 몰입해야 합니다. 주의가 산만한 사람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Q. 지난겨울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수용자와 원활하게 대화하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치소의 일상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수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상황 발생 초기에는 교정공무원이 확진돼 구치소 내에 감염병이 퍼졌다는 잘못된 소문도 돌았죠. 그러다 보니 저희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과 적대감이 상당했습니다. 어떤 수용자는 먹던 도시락을 저희에게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럴수록 수용자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감염을 막기 위해 24시간 구치소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수용자의 완치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싸우고 있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진심을 담아 전했죠. 덕분에 적대감이 서서히 누그러졌고, 결국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단계까지 다다랐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Q. 앞으로 교정공무원 생활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름 없는 들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일지라도 그만의 장점이 있는 법이죠. 앞으로 이러한 수용자 개개인의 장점을 더욱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수용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단점은 줄어들겠죠. 물론 그 중심에는 ‘진심 어린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날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헌신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다

지난겨울,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을 치렀다. 갑작스레 닥친 위기에 우왕좌왕할 법도 했지만,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끈끈한 화합과 온 힘을 다한 헌신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황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데 성공했다. 월간 <교정>이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채로운 선물을 전달한 배경이다.

대유행의 여파를 온몸으로 막아 낸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발 빠르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류했으며, 전 교정공무원이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감염병 확산 저지 및 종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복지과에서는 방역 및 격리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적시에 지원하고자 밤낮없이 발품을 팔았다. 보안과에서는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채 수용자들의 건강과 끼니를 챙기는 한편 불안해하는 수용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 특성상 범원으로 출정해야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방호복을 입기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을 다독였다. 구치소를 오가는 물품도 일일이 소독하고 개별 포장해 분배했다. 또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된 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생활용품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교정기관의 부



담 절감과 수용자 생활 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더해지자 확진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상황은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이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안전한 구치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역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월간 <교정>은 이들이 보여 준 놀라운 화합과 헌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업무 중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마련했다.



체온 측정과 소독을 동시에
‘자동 체온 측정 손 소독기’



무서울 정도로 빠른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몸소 경험했기에,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의 방역 의식 및 대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동부구치소는 월간 <교정>에서 필요한 물품 조사에 나서자 자동 체온 측정 손 소독기를 선물 목록 최상단에 올렸다. 가벼워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데다, 손을 가까이 대자마자 체온 측정과 소독제 분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똑똑한 방역 제품이다.

기동순찰팀 소속인 보안과 임정환 교사는 업무 특성상 수용자들과 마주하는 상황이 많다. 그 때문에 근무 중 틈틈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병행해야 하는데, 일에 몰입하다 보면 두 과정을 함께 챙기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교정 질서를 확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방역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지난겨울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방역 제품이 웬만한 선물보다 더 반갑네요.(웃음)” 외부인이 자주 오가는 민원과에서도 자동 체온 측정 손 소독기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물론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PCR 검사 결과 확인 및 신속항원검사를 거친다. 하지만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의 경우 내부 침입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이다. 박민규 교도가 자동 체온 측정 손 소독기를 ‘화룡점정’이라 표현한 이유다. “이번 선물 덕분에 더욱 두꺼운 바이러스 방어막을 갖출 수 있게 됐네요. 시의적절한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지친 몸에 힐링을 선사하는
‘의자형 안마기 & 발 마사지기’



각자 업무에 집중하라,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라,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조금만 방심해도 피로가 쌓일 수 있는 상황. 이럴 땐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에 효과적으로 몸을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형 안마기와 발 마사지가 활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셈이다.

이렇듯 휴식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기에, 복지과에서는 점심시간만큼은 충분히 쉬자는 의미에서 사무실 소등, 컴퓨터 끄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박준형 교위는 이 시간에 두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수용기록과에서 소송 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심정민 교도도 마사지의 등장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온종일 앉아서 근무하기에 아무래도 몸이 빠근할 수밖에 없는데, 의자형 안마기와 발 마사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 자리에 가져와서 쓸 수 있으니 더욱 쓸모 있겠네요.”

한편 출정과 관태민 교도는 수시로 수용자들과 함께 법원 출정에 나서는데, 그때마다 방역 물품을 갖춘 채 이동하다 보니 순간순간 피로감을 느낀다. 특히 구두를 신은 발이 많이 아픈데, 이번에 선물 받은 발 마사지는 일반적인 지압 기능과 함께 온열 모드까지 갖추고 있어 발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을 것 같다며 반색한다. “발이 신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린다죠? 앞으로 발 마사지와 함께 건강을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 전기포트’



평소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사라지면 꽤 불편한 물건들이 있다. 전기포트와 전자레인지도 그중 하나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번 기회에 직원들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두 가전제품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 일상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물품인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를 박수와 함께 맞이하는 교정공무원들.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제갈영순 교감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각종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님들과 교정위원들이 사회복지과에 자주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잠시 대기할 때 차 한 잔이라도 빨리 내놓고 싶었어요. 전기포트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전기포트는 정수기와 달리 여기저기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 구치소 곳곳에서 업무를 보며 열심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분류심사와 한용훈 교위도 자신의 ‘원픽’으로 전기포트를 택했다. “그동안 수용자 분류 심사 업무 등을 하면서 전기포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물 받게 되니 기쁘네요!” 한편 총무과에서는 행사, 구매 등 각종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에 간혹 끼니를 거르게 되기도 한다. 총무과 강병한 교사가 “그래서 우리 과에는 전자레인지가 딱입니다!”라며 엄지를 치켜올린다.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는 음식, 물과 더불어 교정공무원들의 하루하루를 따스하게 데워줄 것이다.



옛 백제 왕도의 흔적 사이를 거닐다 서울 송파구

가을이 시작되면 서울은 완전한 산책의 도시로 변신한다. 송파구는 고대 역사의 현장을 도심과 자연 속에서 조우하는 유서 깊은 공간이다. 2,000년 전 처음으로 서울을 도읍 삼았던 백제 문화가 길목 곳곳에 숨 쉬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백제의 옛 왕도였던 송파구의 남서쪽 탄천 변에 위치해 있다.

백제 건국의 사연이 담긴 공간들

서울의 역사를 담아낸 대표 명소로는 종로와 중구가 있다. 사대문 안 조선 시대 궁들은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위엄을 자랑한다. 그런데 역사의 추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송파구 일대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천년을 앞서 왕도 서울의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삼국사기> 등에 따르면 백제는 한강 남쪽의 위례성에서 건국했으며, 475년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수백 년간 송파 일대가 왕조의 근거지였다.

산책로로 사랑받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은 4~5세기 백제 왕도의 이름을 위례성에서 한성으로 바꾸며 세력을 넓힐 당시에 축조된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파 남쪽의 신도시로 익숙한 위례, 적석총인 석촌동 고분군과 이어지는 석촌호수, 방이동 고분군 등에는 그 지명에 백제의 유래와 흔적이 깃들여 있다.

1977년 성동구치소로 개칭한 서울동부구치소는 2017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백제의 유서 깊은 고장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했다.

미술관, 토성 간직한 올림픽공원

송파의 길목을 걷는 것은 꽤 유쾌하다. 오래된 서울의 숨결에 다가서는 느낌이다. '강남의 센트럴파크'로 사랑받는 올림픽공원에는 숲과 토성, 미술관과 호수가 담겨 있다.

올림픽공원 중심부에는 몽촌토성 산책로가 숲길 사이로 조성돼 있다. 공원의 상징적 건축물인 '세계평화의 문'과 몽촌호는 토성 산책로에서 조망하면 기품을 더한다. 백제 왕성의 남성(南城)이었던 몽촌토성의 둘레는 약 2.7km로, 토성 밖 성내천은 성을 감싸는 해자 역할을 하던 곳이다.

토성에서 발견된 백제의 유물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올림픽공원 내에 들어선 박물관에는 몽촌토성 외에 풍납토성의 단면이 실물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한강 유역의 백제 문화를 시대별로 재조명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 입장료는 무료다.

박물관 옆으로는 소마미술관이 위치한다. 미술관 주변에는 야외 조각 작품과 쉼터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 가을 소풍을 부추긴다.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K-POP 공연의 주요 무대로도 변신한 올림픽공원은 지하철 5·8·9호선으로 빠르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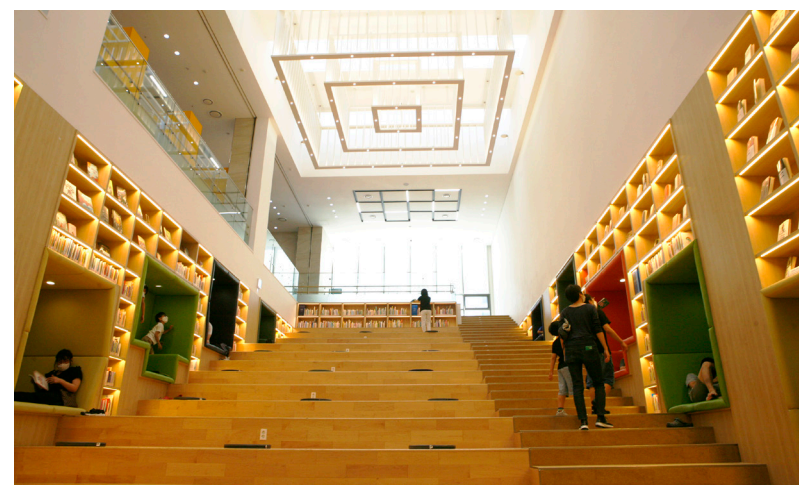




123층 타워와 석촌동 고분군

잠실 일대는 서울 동부권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잠실관광특구는 올림픽공원에서 방이동 먹자골목을 거쳐 석촌호수까지 이어진다. 먹고 놀고 걷는 행위가 편리한 동선으로 진행된다. 롯데월드타워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섰다. 국내 최고 높이(555m)의 건축물은 123층까지 솟아 있다. 높이 478m의 유리 바닥 서울스카이 전망대에 오르면 산봉우리에 선 듯 서울과 한강 일대가 발아래 아득하게 펼쳐진다. 추억을 소환하는 롯데월드의 스틸 뒤로는 석촌호수 산책길이 이어진다. 석촌호수는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

고 호수 변으로는 카페 거리가 밤을 밝힌다.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이 퇴근 후에 가을 휴식을 즐기는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롯데월드타워와 인근 석촌동 고분군은 높낮이 대비가 선명하다. 석촌호수 남단의 고분군에는 한성 백제 시대에 돌로 층을 쌓은 무덤인 적석총과 토광묘 5기가 보존돼 있다. 고분군은 이곳 주민들의 삶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도심 속 공간이다. 고분군 옆으로는 2019년 개관한 송파책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책을 주제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공립 책박물관으로, 시대별 독서 문화와 책을 만드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다.



남한산성 서문에서 조망한 위례

송파구 남쪽의 위례는 백제의 유래가 된 현장이자 남한산성으로 연결되는 관문이다. 위례에서는 남한산성 서문 등산로가 가깝다. 남한산성 서문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시대를 넘어서는 아득한 볼거리를 만들어 낸다. 성루 위에 서면 송파구 전역과 함께 한강이 아득하게 내려다보인다. 한강과 탄천 변에 하나씩 불이 켜지고 열은 어둠에서 벗어난 도시가 은은한 조명으로 뒤덮이는 시간이 차곡차곡 연출된다. 서문 성곽 아래 전망대가 마련돼 있는데, 야경 감상을 하기에는 성곽 위쪽이 한결 운치 있다. 남한산성은 백제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방의 보루 역할을 한 요충지다. 조선 인조 때 청나라가 침략하자 왕이 이곳으로 피신해 47일 동안 항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남한산성은 해발 500m, 둘레 11km 성곽에 200여 개 문화재가 흩어져 있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과 산성 축조 당시 책임자인 이서장군을 모신 사당인 승렬전과 지휘소였던 수어장대, 왕의 임시 거처인 행궁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방이동 먹자골목 & 가락동 수산시장

날이 서늘해지면 방이동 먹자골목의 곱창과 양꼬치가 따끈하게 다가선다. 곱창식당과 양꼬치 식당 10여 곳이 먹자골목 일대에 흩어져 있다. 먹자골목 곱창은 전통의 소곱창 외에 치즈곱창 등 퓨전 음식을 내놓는 곳도 있다. 양꼬치는 소스를 바른 꼬치를 숯불 위에 올려놓고 칭다오 맥주를 곁들이는 방식이 정착했다. 양꼬치와 곁들이는 양갈비, 가지볶음 등도 별미다. 서울에서 노랑진수산시장과 더불어 핫감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 가락동 수산시장이다. 이곳 회센터에서는 싱싱한 제철 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광어, 우럭 등 일반 회뿐만 아니라 대게, 낙지, 전어까지 다양한 제철 해산물에 가득하다. 보통은 수산시장에서 회를 뜬 다음 상차림 비용을 내고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데, 모듬회를 일괄 제공하는 식당들도 있으니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



지구와 우리의 내일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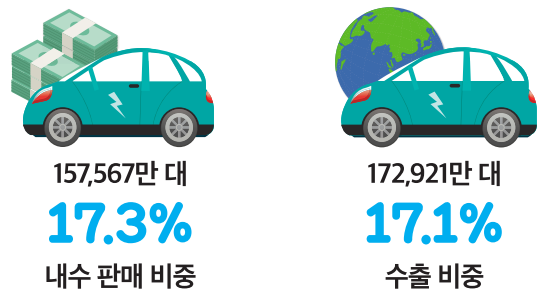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친환경'이란 단어가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로깅', '용기내 챌린지' 등 다양한 친환경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친환경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친환경 시대 속 자동차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소개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친환경차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친환경차 판매량은 국내에서만 총 15만 7,567대를 기록했고 전체 자동차 판매 중 17.3%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친환경차는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7만 2,921대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17.1%에 해당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흐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50 탄소 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 창출과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향후 3년간 친환경차 130종 이상을 국내에 도입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 및 수출 현황
(2021년 상반기 기준)



친환경차 구매 시 혜택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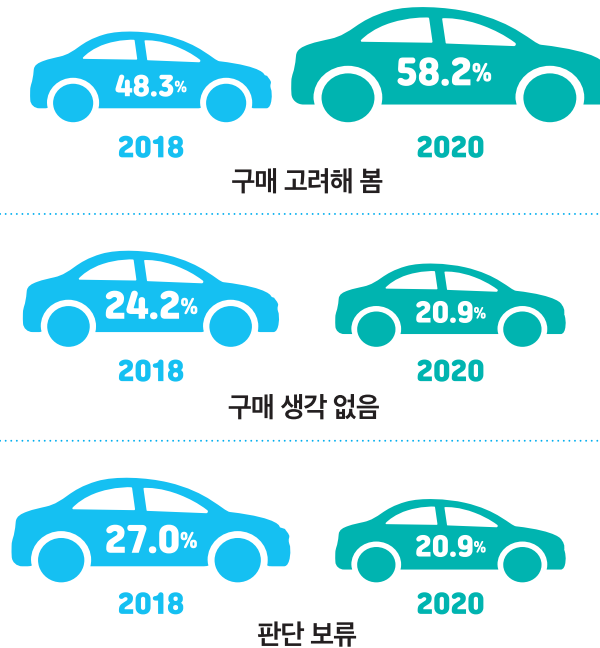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환경부에서도 보급률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p>보조금 지원</p> <p>전기·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 개편하고, 노후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p>	<p>통행료 및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p> <p>전기·수소차로 하이패스 남부 시 통행료 50% 할인해 주고, 공영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요금 면제 또는 50% 할인</p>	<p>충전소 구축</p> <p>전기·수소차 수요가 높은 장소, 이동 거점 중심 고속도로 휴게소, 차고지 등을 선정해 집중 설치</p>	<p>무공해차 의무 구매 임차 제도</p> <p>행정·공공기관에서 임차하는 차량의 80% 이상을 무공해 차로 변경하도록 의무 구매 및 임차하는 제도 시행</p>
--	---	---	--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강해지면서 소비자들도 과거에 비해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과 이용 의향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이하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전기 자동차'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연상하는 이미지는 '친환경'(71.5%, 복수 응답)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도 '친환경적'(63.8%, 복수 응답)인 것을 꼽았다. 향후 전기차의 대중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전체 10명 중 8명(79%)이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전기차의 대중화가 꼭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친환경차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트렌드모니터의 전기차 구매 의향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는 48.3%가 구매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58.2%로 10명 중 6명 정도가 전기차 구매 의향을 밝혔다. 그만큼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특징과 장점이 소비자에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과 인프라는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구매를 생각한다면 친환경차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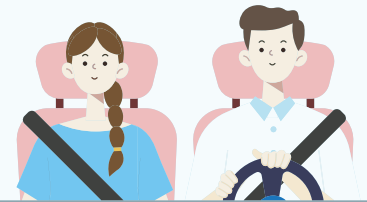
전기차 구매 의향 (N=1,000, 단위: %)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운전 습관



- 경제속도 준수**
경제속도(60~80km/h)를 준수하면 차량 연비를 높이고 배출 가스도 줄일 수 있다.
- 가속페달 밟지 않기**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을 밟지 말자. 내리막길에서는 연료 차단 기능이 작동돼 연료 소모를 막는다.
- 출발은 천천히**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등 '3급'을 하지 말자. 급출발 10번은 연료 100cc를 낭비한다.
- 공회전 줄이기**
공회전을 5분 이상 할 경우 1km 이상 주행 가능한 연료가 소모된다.
- 타이어 공기압 체크**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로 운전할 때 50km당 300원가량이 낭비된다.
- 주기적인 자동차 점검**
최소 한 달에 1번은 에어클리너를 점검하자. 오염된 상태로 운전하면 연간 90kg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된다.
- 트렁크를 비우자**
트렁크에 짐 10kg을 싣고 50km 주행 시 연료 80cc가 낭비된다.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이번 호 월간 <교정>에 소개한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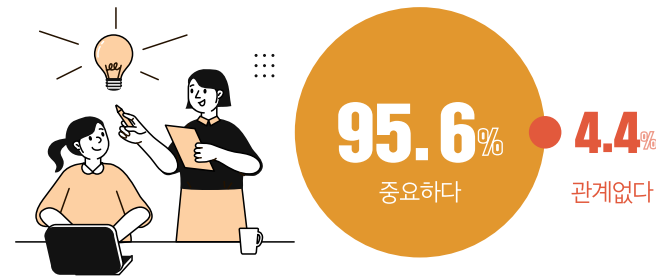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동료 간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대화의 기술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 속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더욱 중요해진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변화를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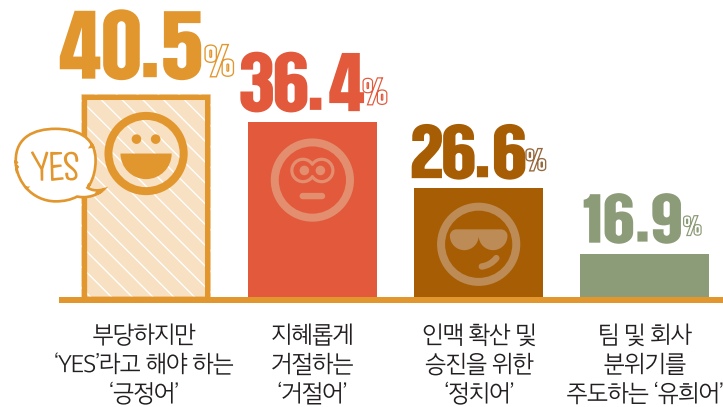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하 사람인)이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 말하기(회사어) 구사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95.6%의 직장인이 '대화 기술은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직장 안에서 활용하는 일명 '회사어' 말하기 능력으로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업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47.4%는 회사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꿈은 직장생활 의사소통 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에 대한 조사(*복수 응답)에서는 '부당하지만 YES라고 해야 하는 긍정어'(40.5%)를 택했다. 이어서 '지혜롭게 거절하는 거절어'(36.4%), '인맥 확산 및 승진을 위한 정치어'(26.6%), '팀 및 회사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희어'(16.9%) 등의 순이었다.

직장생활에서 대화 기술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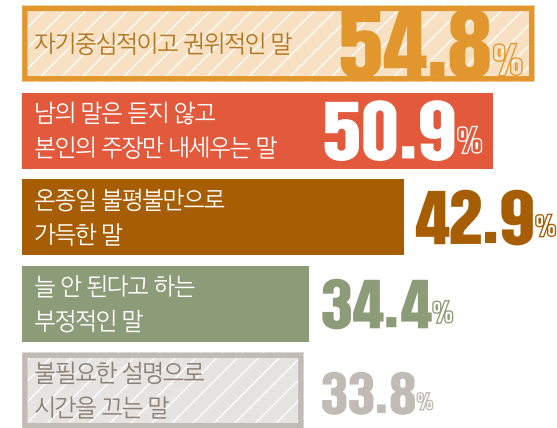
직장생활에서 의사소통 시 가장 하기 어려운 말 (복수 응답)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말투가 가장 비호감

한편, 직장인이 꼽은 회사 내 비호감 말하기 유형(*복수 응답) 1위는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말'(54.8%)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하는 말'(50.9%), '온종일 불평불만만 가득한 말'(42.9%), '늘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34.3%), '불필요한 설명으로 시간을 끄는 말'(33.8%) 등의 순이었다. 협업과 조율이 필수인 직장생활에서는 업무 전문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 능력'이다. 교정공무원 역시 동료들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능력이다. 소통 능력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역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정중한 언어 선택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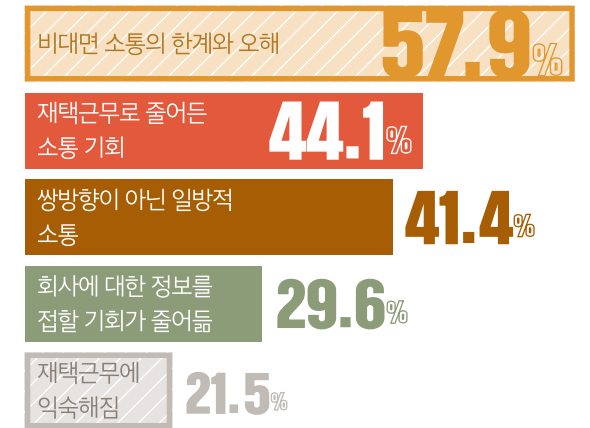
회사 내에서 가장 비호감인 말하기 유형 (복수 응답)



코로나19 이후 사내 소통의 변화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사내 커뮤니케이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41.4%가 사내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사내 소통이 더 어려워진 이유(*복수 응답)로는 '비대면 소통에서 오는 의사전달의 한계와 오해'가 5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등으로 구성된 간 소통이 줄어들어'(44.1%), '쌍방향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41.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직장인의 78.3%는 코로나19 이후 사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이후 효율적인 사내 소통 방식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증정을 통한 언택트 화식'(61.9%)이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35.6%), '사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32.3%)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사내 소통이 어려워진 이유 (복수 응답)



대화의 첫 번째 기술, 경청 능력 Check List!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간다. 경청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다. 교정공무원 역시 민원인 응대와 수용자 교정교화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경청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경청 능력을 체크하고 대화 역량을 키워보자.

- 경청 능력 테스트**
- 얼굴을 바라보며 눈 맞춤을 교환한다.
 - 상대방 표정과 몸동작 등을 살핀다.
 - 말을 들으며 고갯짓을 끄덕인다.
 -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넣어준다.
 - 대화 내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는다.
 - 상대방의 말을 요약, 반복, 질문해 의사 표현을 촉진한다.
 -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며 관심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 상대방의 말에 지지, 인정, 격려의 말로 반응한다.
 - 상대방의 목소리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 대화 시간의 70% 이상을 상대방이 하도록 만든다.
- ※ 체크 개수에 따른 경청 능력, 8개 이상(매우 우수), 5~7개 사이(보통), 4개 이하(미흡).

상대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진정성 소통법

가짜에 질린 요즘 사람들

현대인은 점점 고독해지며, 인간관계도 더 힘들어한다. 상담을 받았던, 평범한 직장인 예서 씨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신물이 난다고 했다. 딱히 나쁜 동료나 상사 때문이 아니라 직장 내 인간관계 자체가 이해와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관계이다 보니 마음 편히 지내기도 어렵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서 어떤 재미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니, 이제는 그런 관계에 질릴 정도라고까지 했다. 이는 비단 예서 씨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공적 관계에서 편안함이나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경쟁과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관계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대면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칼 융에 따르면 사회에서 우리는 본연의 자기를 숨기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사회적 만남에서 '페르소나(persona)'라는 가면을 쓴다. 융은 "인간은 천 개의 페르소나를 지닌 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페르소나를 바꾼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본연의 자기와는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도 많다. 사람들은 가면 없는 관계를 갈망하지만, 가면을 쓴 관계와 만남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상대에게 진정성을 바라는 사람들

사람들은 자신은 계속 가면 속에 숨으려고 하면서도, 상대는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현대인이 갈망하는 가치가 바로 '진정성'이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과 상담할 때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는 것이다. 그럴 때 필자는 진정성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조언한다. 뻔한 답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가면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는 것이다. 관심 가질 관계나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겠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만남 혹은 사람이라면 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모두 매마른 인간관계, 고독한 일상에 지쳐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 거짓된 말과 행동, 속마음에 갈수록 예민해져 간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도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에서 깊은 인간관계, 가슴의 대화를 경험하기 힘든 것은 각자 상대에 대한 불신과 관계에 대한 경계심이 큰 까닭이다. 그러니 자칫 내가 상대를 속이려 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순식간에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다. 그것이 부주의였든, 실수였든 상대는 나와서 만남을 '진정성'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다시 두꺼운 가면을 쓸 것이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표정, 제스처

어떻게 하면 진정성을 담아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최근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자주 접했을 것이다. 범죄자의 언행에서 작은 단서를 찾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직업이다. 프로파일러가 처음 배우는 기술은 상대의 언행에서 마음을 읽어 내는 법이다. 가령 대화 중에 자주 손이 가거나 자주 눈을 비비는 행동은 지금 거짓을 말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상황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제스처가 있다면, 반대로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제스처도 있다.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해야 할 것도 많다. 먼저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굴의 안륜근까지 모두 움직이는 활짝 웃음, '뒤센(Duchenne) 미소'를 자주 보이면 상대는 좀 더 쉽게 마음을 열 것이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 일명 '파워 포즈(power pose)'를 취하면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하늘로 뻗거나 다리를 최대한 벌리는 등의 '하이 포즈(high-power pose)'는 건강과 면역력까지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으로 진행한 모의 면접에서도 '하이 포즈'를 한

지원자를 뽑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긍정적 제스처들이 있으니 하나씩 찾아서 연습해 본다면 진정성 있는 표현이 쉬워질 것이다.

심리 조종이 아닌 진정성 소통 필요

최근 상담에서 부쩍 심리 조종에 관해 묻는 사람을 자주 접한다. 혹시 자신이 심리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이 상대를 심리 조종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최근 자주 들어 본 '가스라이팅'도 심리 조종의 일종이다. 심리 조종은 말 그대로 상대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팅 방법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설사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반대가 진정성 소통이다. 상대를 조종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성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를 지배하려는 본성이다. 이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욕망이다. 상대를 자기 아래에 굴복시키고 부리려는 욕망이다. 진정성 소통의 목표는 상대와 공감, 공존, 협력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에게 연민과 감사, 존경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런 마음의 변화 없이 대화 기술이나 처세술만 찾다가는 상대와 언제까지나 가면을 쓴 채 겨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담을 마무리할 즈음, 필자는 예서 씨에게 진정성 소통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지금 그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몇 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 보라고 조언했다.

진정성 소통을 위한 방법

1. 상대를 지배하지 않는다. 상대에게도 선한 의지와 욕구가 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애쓴다.
2. 인간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지속적인 유대를 맺는 것이다. 오래 함께할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3.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것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 항상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주려고 노력한다.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가을철 야외 활동 안전 수칙 편

천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이 좋은 계절임을 나타낼 때 흔히 쓰는 말이다. 이런 좋은 계절 때문일까. 화창한 날씨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산과 들로 야외 활동을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질병과 안전 수칙을 알아보고 스스로를 지키자.

가을철 야외 활동 발열성 감염병

1

쯔쯔가무시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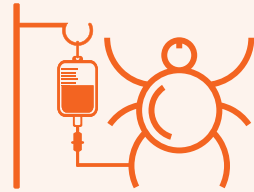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치사율이 약 20%로 사망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팔 토시,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고,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충에 물렸을 때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48시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TF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매개체 감염병이다. 심한 경우에는 신장과 다발성 장기 기능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앉을 때는 돛자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야외 활동 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돛자리는 세탁 후 햇볕에 말리는 것을 권장한다.



3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에 감염된 쥐 등의 설치류나 소·돼지·개 등 가축의 소변 등에 노출돼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논이나 물이 고여 있는 습지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복과 장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고열·근육통·설사·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의료 기관을 방문해 최대한 빨리 항생제를 맞아야 한다.



4

신증후군 출혈열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타액 등으로 배출돼 건조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호흡기로 감염되는 발열 질환이다. 잔디 등의 풀 위에 눕는 행동을 자제하고, 들쥐의 배설물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야외 활동이 많은 군인이나 농부, 그리고 실험용 쥐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등은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한다.



가을철 야외 활동 안전 수칙

벌 쏘임 사고 예방은 긴 소매 옷 착용부터

가을은 벌에 쏘이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색 계열의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화장, 헤어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자. 또한 주스 같이 단 음료를 마시면 벌이 꼬이기 쉬우니 주의한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벌침을 제거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



나뭇가지와 방울 이용해 뱀 물림 사고 예방하기

뱀은 벌초는 물론 산행 시에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산에 갈 때는 두꺼운 등산화나 양말을 신어 발과 다리 등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하고, 만약 뱀을 마주치면 나뭇가지를 이용해 땅을 두드려 뱀이 스스로 도망가게 만든다. 나뭇가지 외에도 방울을 가지고 다니면, 방울 소리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뱀을 피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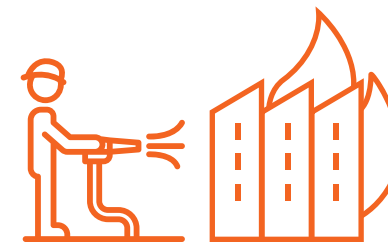
작은 불씨 살펴보며 산불 예방하기

산림이나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는 담뱃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물론 산에는 성냥·라이터·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논·밭두렁에서도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않는 것이 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더불어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산불 발견 시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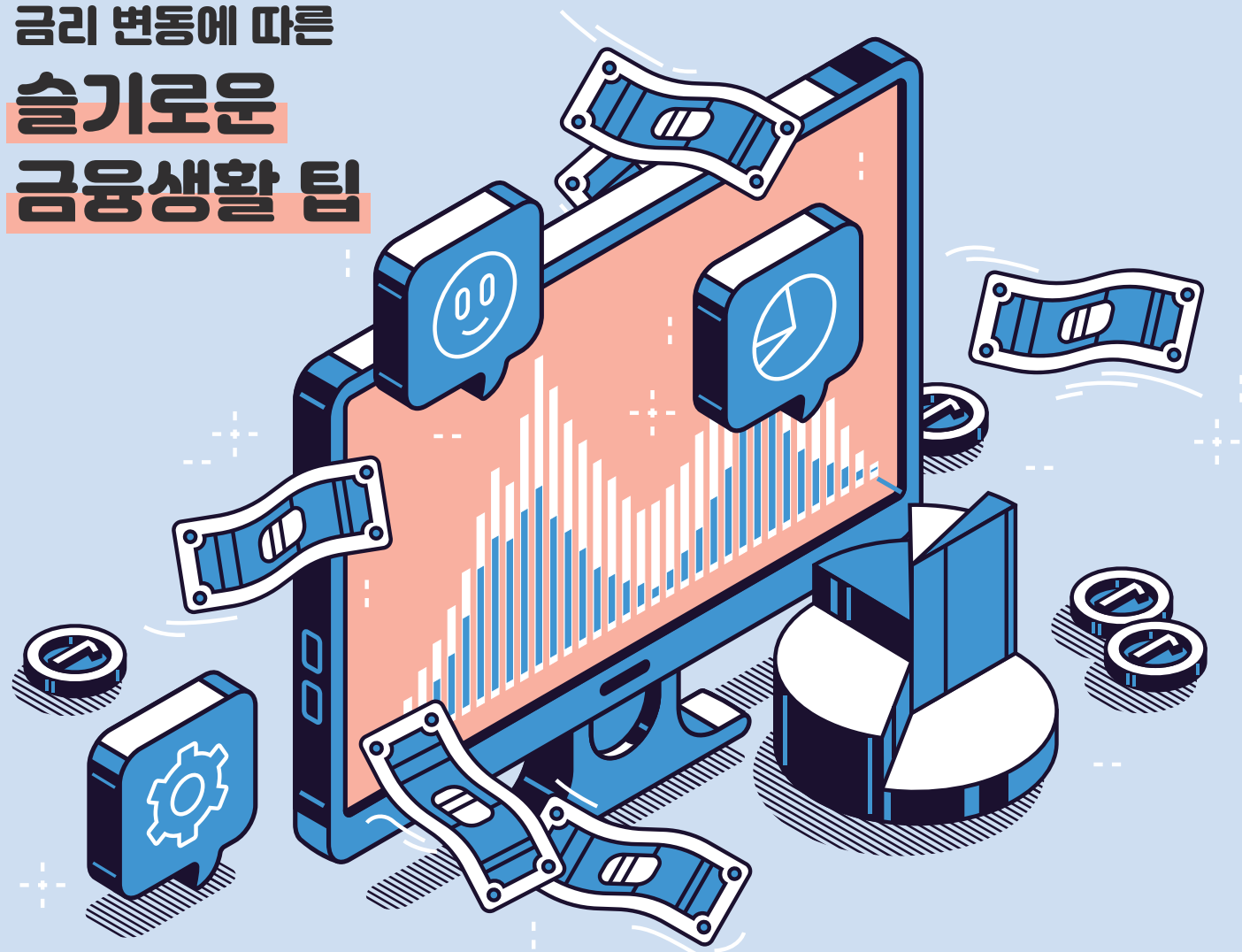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끌 수 있다. 만약 산불 규모가 크다면 불이 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공터 등 안전지대로 재빨리 대피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구조를 기다리자.



주택가로 산불 확산 시 집 주위에 물 뿌리기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된다면 집과 창고 등의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리자. 그리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 및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이나 휘발성 가연 물질 등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산불 상황을 알리는 소식을 집중해 듣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 대피하지 않은 이웃을 위해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 주자.

금리 변동에 따른 슬기로운 금융생활 팁



기준 금리 인상, 재테크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0.5%였던 기준 금리를 0.75%로 올렸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33개월 만이다. 오랜 고민 끝에 금리 상향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문가 중 일부는 10월쯤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본다. 그 예상대로라면 내년 여름쯤 금리는 코로나 사태 전보다도 높은 1.5% 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금리 인상이 오려면 더 투자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

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일 때가 차라리 마음 편하다. 어찌 됐든 한쪽으로 추측하고 대응하면 되니까. 반면 금리 인상이 확실시될 때는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추정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예금 가입 타이밍을 잡는 것만 해도 그렇다.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고 하니, 언제 예금에 가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6개월 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많다고 한다면 '돈은 놓고 있는데 6개월 이상 계속 기다려야 하나' 하는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인으로서 고민해야만 한다. 이번 편에서는 금리 인상기가 한창일 때 예금과 대출, 그리고 다른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금 가입 시점, 내년 상반기가 유리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것은 1~3년 이상 장기 예금이나 적금 가입이다.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굳이 낮은 금리로 장기간 묶어 둘 필요는 없다. 지금은 만기 3개월, 길어도 6개월의 단기 예금 중심으로 가입해야 한다.

9월 13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이 연 2.7% 선이다. 하지만 이는 12개월 기준이고, 6개월 만기 상품 중에는 OK저축은행의 OK웃샘정기예금의 금리가 2.5%다. 이 상품들은 7월만 해도 금리가 2.2~2.5% 선이었다. 불과 두 달 만에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0.2%p씩 오른 셈이다. 이를 고려하면, 추후 기준 금리가 못해도 0.5%p는 오를 테니 내년 상반기엔 연 3.0% 금리가 가능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금 사정에 맞게 시기를 맞춰 예금에 가입하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하반기 들어서는 한동안 동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미국 등 선진국은 최소 2023년은 돼야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많다. 미국이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급속도로 올리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목돈이 있지만 추후 금리가 더 올랐을 때 예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일단은 파킹 통장에 넣어 두자.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주차해 놓는' 통장을 말한다. 현재 OK파킹대박통장이 1.7% 금리를 지급해 이자가 가장 높고, 대신저축은행이 최근 금리 1.6% 조건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을 출시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9월 현재는 아직 출시하지 않았지만, 핀테크 기업 토스가 토스뱅크를 출범하면 연 2%의 수시 입출금 통장을 내놓는다고 하니 출시되면 가입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자.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은행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뛰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 배당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금리가 최고점에 다다랐다면, 고금리 예금 가입도 좋지만 채권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신용 등급이 우량한 기업 회사채는 은행 예금보다 0.5~1%의 금리를 더 지급한다. 채권 가입에 관심이 있다면 근처의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신규 대출·갠타기도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유리

대출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 일단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조만간 금리가 갱신될 때 깜짝 놀랄 수준으로 오를 수 있으니 자금을 마련해 분할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짧게는 매달, 길게는 1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마찬가지다. 당장 상환할 여력이 없다고 해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신규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해가 바뀐 뒤 알아보는 것이 좋다. 지금은 각 은행이 대출 한도가 거의 꽉 차 있다. 현재는 기본 금리가 높은 데다 가산 금리도 높은 수준에 있어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데 불리한 시점이다. 해가 바뀌면 새로 영업 목표가 나오니 그 시기쯤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되도록 고정 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추천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방식이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상을 자신하면서 사실 시장금리도 꽤나 올라 있는 상태다. 지금은 고정금리 대출도 꽤 비싸다. 어쩌면 해가 바뀌어 상황이 좀 진정됐을 때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한국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식거나,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을 미룬다면 우리나라도 의외로 금리 인상 기조가 금세 끝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출 갠타기를 검토하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어수선할 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자.

위에서 언급한 토스뱅크는 1금융권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이후 처음 생기는 인터넷 전문 시중은행이다. 토스뱅크는 아무래도 후발 주자이니 좋은 조건의 대출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즉 '메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토스뱅크는 10월 중 공식 출범한다.



너희가 '스트리트'를 아느냐?

길 위에서 태어난 하위문화가 주류가 되기까지, 스트리트 컬처 시대에 관하여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아닐까. 매주 화요일이 돌아오길 기다려 본 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이후부터 일요일이 <스우파>를 기다리는 화요일 이전과 <스우파>를 본 화요일 이후로 구분됐다. 심지어 한반도, 최소한 남한 땅에서 밥벌이하는 누구라도 반겼을 법한 지난 추석 연휴에는 <스우파>가 결방된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떨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단언컨대, 결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것이다.

TV 화제성 분석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스우파>는 첫 회가 방영된 8월 넷째 주부터 3회가 방영된 9월 둘째 주까지, 매주 비드라마 TV 화제성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0.8% 수준이었던 1회 시청률은 5회에 이르러 2.4%로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에서는 <스우파>에 관한 '썸'이 난무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는 <스우파>의 춤을 카피하고 따라 하는 챌린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마 <스우파>를 편성한 엠넷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댄서들도 이 정도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스우파>에 출연한 댄서들의 인지도는 인플루언서 수준을 넘어 셀러브리티나 다름없는 지위를 차지했다. 유명 아이돌 가수의 안무가이거나 댄스 팀으로서 배후에 자리하던 이들이 전면에서 열광을 받고 있는 현상은 이색적이면서도 신선

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스우파>에 출연하는 여성 댄서를 '스트리트 우먼'이라 지칭한 건 그들이 추는 춤과 깊은 연관이 있다.

STREET LIFE

DJ DOC가 2003년에 발표한 노래 'Street Life'는 미국의 퓨전 재즈 밴드 크루세이더스가 1979년에 발표한 동명 원곡을 샘플링한 곡이다. 랜디 크로퍼드가 객원 보컬로 참여한 이 넘버는 제목 그대로 '길거리 생활'을 자유 예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길거리로 내몰린 흑인들의 삶을 자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길거리'를 의미하는 '스트리트(street)'라는 단어가 당대 흑인에게는 일상을 영위하는 물리적 영역을 넘어 삶을 지배하는 정신적 사조로 여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힙합을 비롯해 오늘날 흑인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중적 유행과 현상은 '스트리트'라는 영토에서 영위되는 그 모든 삶의 태도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가난하고 권력도 없이 길거리로 곧잘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애환을 길 위의 예술로 승화하며 리듬과 그루브로 체화한 자유분방한 노래와 춤은 차차 개성 있는 표현 양식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예술적 경지로 받아들여졌다. 랩뮤직이 대중음악으로 소비되는 지금의 세태는 그것이 한때 특정한 인종이나 계층의 하위문화로 인식되

던 시절을 떠올리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기도 하다.

자유롭다는 건 결국 저항적일 수밖에 없다. 시대를 지배하는 주류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들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던 기성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일 것이다. 그들에게 새롭다는 건 낯설어서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신선한 기호로 제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기존의 사유에 얽매이지 않고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관점으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영토로서 새로운 세대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전에 없던 문화적 광장을 만들어 낸다.

STREET CULTURE

국내에서 힙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대중적으로 전파된 1990년대의 분위기도 그런 것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듀스' 같은 댄스 그룹이 등장해 큰 인기를 얻은 덕분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듀스 같은 그룹은 전통적 관점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댄스 가수로 분류됐지만 그들을 좋아한 팬들은 댄스보다 '힙합'이라는 단어에 매료됐다. 단순히 '춤 추고 노래한다'는 행위를 넘어 힙합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태도이자 스타일을 규정하는 복음 같은 것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듀스가 인기 있는 댄스 가수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단순히 인기곡을 부르는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벗어나 패션과 스타일을 선도하는 메시아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1990년대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힙합이 큰 인기를 얻은 건 세계적인 대중문화 흐름의 영향도 있었지만 새로운 세대에 걸맞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구축한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을 입고 소비함으로써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식이 뜨겁게 달궜다는 과정의 재미가 쏠쏠하게 다가왔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 세대에 대한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결국 힙합이라는 하위문화, 즉 서브 컬처가 주류 문화로 부상한 건 새로운 시대성을 자각한 세대의 관점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다. 또한 오늘날 자연스럽게 스트리트 컬처라고 일컫는 문화적 현상 역시 그러한 흐름으로부터 이어진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대성에 따라 세대의 인식에는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1990년대의 힙합이 기성세대에게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창과 같았다면 21세기에 힙합이란 문화적 주류로 자리 잡고 지속적인 소비를 권하고자 새롭게 변모하는 스타일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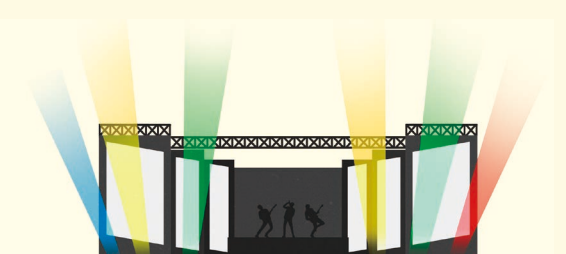
STREET SPIRIT

최근 몇 년 사이 패션계를 주름잡는 화두란 단연 스트리트 패션일 것이다.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너 나 할 것 없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고가의 한정판 모델을 판매하는 건 요즘 흔한 일이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로고를 함께 새겨 넣으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쿨하게 인식시킨다. 우아하고 아방 가르드한 패션 하우스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힘하게 탈바꿈된다. 올드 스쿨과 뉴 스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파격적인 브랜드 철학을 전파한다.

지금도 스트리트 컬처가 더 이상 하위문화나 서브 컬처로 분류되지 않는 시대다. 21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은 문화이자 산업이며 이념이다. 심지어 전통적 올림픽 풍경마저 바꾸고 있다. 올해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스케이트보드와 3대 3 농구, BMX 프리스타일 종목이 신설됐다. 해당 종목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는 10대 초 중반에 불과한 어린 선수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비보잉 같은 브레이크댄싱 종목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올림픽과 같은 유서 깊은 인류의 제전도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대와 호흡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바야흐로 지금은 스트리트 컬처의 시대다. 길거리에서 태어난 비주류 문화가 새로운 시대의 주류 문화로 거듭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다. 수많은 사람이 '스트리트'라는 기호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를 탐닉한다. 스트리트 컬처는 프리스타일이라는 단어처럼 보다 확고한 개개인의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기꺼이 소비하길 권한다. 세계의 다양성과 개인의 독창성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21세기가 스트리트 컬처의 시대가 됐다는 건 결국 그런 다양성과 독창성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스트리트 컬처가 주류가 됐다는 건 이 역시 문화적 흐름 안에서 언젠가 낡고 진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돌고 도는 유행 안에서 늘 새로운 것은 없다. 스트리트의 시대도 그렇게 도래했다.



Health Infographics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다리' 건강 이야기

다리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제2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다. 현대인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일이 많다 보니 다리의 압력이 높아져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리와 관련된 질병을 살펴보고 예방해 보자.

하지정맥류

- 정의** 하지의 표재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꼬불꼬불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질환
- 원인** 유전적 요인, 경구 피임약 복용, 하루 6시간 이상 서 있는 직업, 비만 등
- 증상** 동통, 둔통, 자통, 경련통, 피로감, 작열감, 무거움, 가려움증, 피부 궤양 등
- 치료** 생활 습관 변경, 압박 스타킹 착용, 수술,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 내 폐쇄술 등

하지불안증후군

- 정의** 다리의 불편한 감각 증상으로 다리를 움직이게 되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 원인** 철분 부족, 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추정
- 증상** 다리·발·손·몸통 등에 통증, 수면 장애, 다리가 간지러움, 수면 시 사지 떨림 등
- 치료** 발·다리 마사지, 족욕, 가벼운 운동, 철분제 투여, 도파민 제제 복용 등

구루병

- 정의** 칼슘과 인의 대사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
- 원인** 햇볕이나 음식을 통한 비타민 D 부족, 모유 수유만 할 경우 등
- 증상** 창백한 피부, 땀을 많이 흘림, 근육 이완 등 복부·임파선 팽창 등
- 치료** 비타민 D 제제와 칼슘 투여, 충분한 영양 섭취, 햇볕 많이 쬐기 등

각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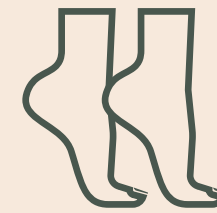
- 정의** 비타민 B1이 부족해 다리 힘이 약해져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질환
- 원인** 비타민 B1 결핍,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많이 발생
- 증상**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무감각, 단기 기억력 상실, 혼돈, 복부 통증 등
- 치료** 고용량의 티아민을 공급해 치료, 다른 수용성 비타민도 함께 공급

Healthy Guide

제2의 심장, 건강한 다리를 위한 솔루션

다리가 찌릿찌릿하며 쥐가 나는 이유는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의 과긴장과 수축 때문이다. 만약 다리에 혈액이 고여 피가 굳으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예방 및 실천법을 알아보자.

관절염을 예방하는 일상 속 습관



Healthy Guide 01 출퇴근길에 툼툼이 발꿈치를 들어요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5초 정도 유지해요.



Healthy Guide 02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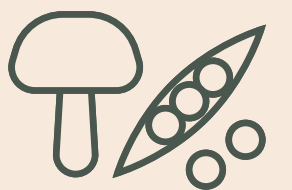
유제품, 멸치, 방어포, 해조류, 채소, 콩, 두부는 칼슘이 풍부해요.

다리 부종을 막는 간단한 실천



Healthy Guide 03 부은 다리에 좋은 자세를 취해요

베개나 담요를 이용해 부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요.



Healthy Guide 04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콩, 감자, 버섯 등에 많이 들어 있어요.

나도 혹시? 하지정맥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다리가 자주 붓는다.
- 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다.
- 이유 없이 다리가 가렵다.
- 다리에 거미줄 모양의 푸른 실핏줄이 나타난다.
- 다리에 피부병이나 멍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
-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종아리가 저린다.

교정본부 주최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보부장회의 '2021 재정위원회·관리이사회'



세계 각국의 교정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해 온 아시아-태평양 교정보부장회의(APCCA)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취소했다. 대신 회원들의 연대와 다음 회의 계획 등을 위한 재정위원회와 관리이사회 회의는 비대면 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관리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주최를 맡은 우리나라 교정본부는 유병철 교정보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9월 29일 오후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했다.



연차총회는 취소, 비대면 비즈니스 회의만 진행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교정행정의 노력은 전 세계 법치국인들의 공통된 과제이다. 아시아-태평양 교정보부장회의(APC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교정행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 논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80년 홍콩에서 출범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40년 넘게 회원국 간 교정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온 APCCA는 현재 우리나라와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총 27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매년 개최국을 정해 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 제41차를 맞은 APCCA는 원래 개최 예정국인 우리나라에서 다채롭고 의미 있는 일정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2월 심사숙고 끝에 개최 취소를 결정했다. APCCA 행사가 취소된 건 설립 이래 지난해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총회에 이어 비즈니스 회의마저도 이메일로 대체한 것과 달리 올해는 회원국들의 연대와 다음 연도 회의 계획 등을 위해 2020-2021 관리이사회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비즈니스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3번째 개최 예정

이번 비대면 비즈니스 회의는 법무부 교정본부 내 교화방송센터(보라미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교정본부는 원활한 비대면 비즈니스 회의 진행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은 물론이고 당일에도 유병철 교정보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일찍부터 리허설을 거듭하는 등 만반의

준비 끝에 영상회의를 주최했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한 첫 순서는 재정위원회 회의로, APCCA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위원회의 현황을 보고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정위원회 회의에는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APCCA 기금관리국(홍콩), 직전 2개 주최국(몽골, 말레이시아), 향후 2개 주최국(싱가포르, 베트남) 등 6개국의 교정행정 대표자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30분간의 휴식 후 4시 30분부터 진행한 관리이사회는 주최국인 우리나라와 APCCA 사무국(홍콩, 싱가포르), 직전 및 향후 주최국 외에도 선출위원국(중국, 일본, 호주, 스리랑카), 순환위원국(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등 소속 14개국 중 13개국이 접속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 현황 보고 및 승인, 회원국 가입 승인 외에도 APCCA 웹사이트 개편, APCCA 기금 및 재무기록 관리, 11월 싱가포르 웹세미나 준비 현황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유병철 교정보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했지만, APCCA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연차총회 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개최 취소에 따른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APCCA 커뮤니티의 추진력과 정신 유지를 통한 더 나은 협력을 위해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영상회의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983년 제4차 회의에서 회원국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후 매년 APCCA에 참가해 왔으며, 제7차인 1986년과 제25차인 2005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됨으로써 우리나라의 3번째 APCCA 개최는 2025년으로 연기됐다.

주	임	님,							
꼭	살	아	내	세	요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태를 겪으며 자신 앞에 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마음가짐, 즉 ‘책임감’이야말로 공직자로서 모든 일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205명의 수용자가 감염됐고 직원들도 29명이나 감염된 2020년 12월의 서울동부구치소는 구치소 전체가 감염됐다고 말할 수 있었다. 정말 두려웠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이 수기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코로나 격리 수용소에서 근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내 마음을 기록한 것이다. 두 달여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는 내게 ‘책임감’과 ‘동료애’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숙이 깨닫게 해 준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충격과 공포

(2020년 12월 19일) 18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후 2시경 온 메일을 출력해 보니 A4 용지 3장이 넘어가는 분량이었다. 숫자를 세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7층과 8층은 대부분의 수용자가 확진됐다. 내가 있는 6층은 그나마 위층들에 비해선 적었지만, 우리 사동도 거의 30% 정도가 확진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서야 하나.

(2020년 12월 23일)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았다. 요즘

은 3일에 한 번씩 전 직원 및 수용자가 PCR 검사를 받는다. 내일은 몇 명이 확진됐을지 아무도 모른다.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두 번째 직원 확진자가 나온 12월 13일 이후 문자가 하루에 적어도 네댓 통씩 온다.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앞서는 두려움과 공포.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누굴까, 어느 분이 확진된 걸까.

(2020년 12월 26일) “주임님 조심하세요. 꼭 살아 내세요.” 우리 수용동 재소자가 나에게 한 말이다. 남들이 보면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으로 착각하겠다. 그러나 위의 말은 우리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정말 지금의 우리 상황은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매일같이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두려운 적이다. 누가 감염자인지, 잠복기인지 아무도 모른다. 직원인지 수용자인지.

(2020년 12월 29일) 어제 야간 근무를 서는데 함께 있던 직원이 자신은 코로나 난민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신이 지금 집에 못 들어간 지 10일이 넘는다면서 우리 소에 확진자가 너무 많고 위험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 자신은 코로나 난민이라는 것이다. 정말 격하게 공감아 됐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12월 13일 이후 난 퇴근해 집에 가면 자가 격리자 처럼 집 밖으로 거의 안 나온다. 마트도 편의점도 좀처럼 가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이다. 내가 접촉한 확진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2021년 1월 3일) 어제도 전수검사 때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어느 직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수용자가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욕하고 때릴 듯이 덤벼들기에 내가 중간에 막아서서 차단하려는 순간 그 수용자가 나를 밀쳤다. 나는 방호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감염이 우려돼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결국 직원들이 그 욕을 다 받아 주고 겨우 달래서 진정시켰다. 마스크에서 직원이 코로나를 전염시켰다고 직원 책임론을 부각한 이후, 수용자들은 “우리가 너네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 어쩔 수가 없었다.

코로나 격리 수용동 근무

(2021년 1월 4일) 아, 너무나 고된 하루였다. 예상은 했지만 격리팀으로 투입되고 딱 하루 근무했는데 이제까지 근무했던 그 어떤 때보다 힘들었다. 격리팀 근무 전에는 나도 명예퇴직 조건이 되니까 여차하면 명퇴하겠다는 생각, 즉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떻게 해야 근무를 빠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직접 겪어 보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빠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도 말끔히 지워졌다. 내 동료들이 격리 수용동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빠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절대로. 나는 내 동료들과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2021년 1월 10일) 다른 격리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직원 확진 소식은 전체 격리팀 직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다. 우울 그 자체다. 뭘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아, 사랑하는 이들과 못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괴롭구나. 우리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다. 당뇨에 기관지염까지 지병이 있는 직원들도 근무자가 부족해 예외 없이 격리팀에 배정되고 있다.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다.

(2021년 1월 31일) 12월은 한마디로 공포였다. 특히 12월 24일쯤인 거 같은데, 빨리 방패를 갖다 달라는 격리팀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TRS 무전기를 통해 들렸던 것을 또렷이 기억한다. 당시 격리 수용동은 아수라장이었다. 침 뱉고 도시락 집어던지고 욕하고, 그 난장판을 뚫고 수용동에 진입하려면 방패로 몸을 보호하고 접근해야 했다. 처음 투입됐던 1진과 2진은 확진자가 발생해 불과 4-5일 만에 즉시 교체됐다. 격리팀으로 투입되지만 하면 확진자가 발생하니 투입 순서

를 기다리는 현장 직원들은 저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졌다.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았다. 검사 후 어김없이 실시된 새벽까지 이어진 전방. 흐릿한 불빛 아래 주북도 군데군데 쳐 놓은 투명 비닐 차단막, 그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얀 방호복 입은 직원들과 푸른색 수의를 입은 확진된 재소자들, 또 그 와중에 들리는 수용자들과의 실랑이.

(2021년 2월 8일) 오늘부로 격리팀에서 해제. 이제 12월부터 먹어 온 그 지겨운 도시락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고 수용동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해제가 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일상으로 복귀

이제 근무 체제는 3부제, 2부제 근무에서 원래의 4부제 근무 체제로 돌아갔다. 그동안 서로 격리돼 있어 보지 못했던 직원들을 두 달여 만에 만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돌아보면 힘들고 고통의 연속이었고 인내를 요구하는 나날이었지만 우리는 해냈다.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확진자가 생겼을 때 한마음으로 아파하고 걱정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고생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가 바로 내 동료들이고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서 겪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난이 닦쳤을 때 극복해 가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고난을 멋지게 극복해 냈을 때 그 조직 내 구성원들은 끈끈하게 서로 단합을 이뤄 낸다. 우리 서울동부구치소가 그랬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견딜 수 있고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이런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했던 지난 두 달은 나에게 동료애가 무엇인지, 또 공직자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준 귀중한 경험의 시간이었다.

※ 2021 공직문학상 수상작(동상)을 요약한 글입니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피	해	자	들	과		가	족	에	게		
제		진	심	이		당	기	를		바	라	며
		용	서	를		구	합	니	다			



저는 현재 공동 폭행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조○○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이런저런 책을 접하다가 <새길>이라는 수용자 종합문예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본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생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고생하는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부디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외동으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3년여 동안 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져 낡은 주택으로 이사 간 후 어머니 혼자 어렵게 생계를 이어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이 너무도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일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음식점 서빙부터 시작해 막노동, 공장, 택배 등 온갖 일을 하며 가난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해 다 같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폭행, 갈취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 점점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에도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대수롭지 않게 범죄를 일삼다가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며 결국 10대의 마지막 시절에 큰 사고를 일으키고 구속돼 징역 8년형을 받아 20대 초중반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잘못된 가정환경과 세상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 친구가 아기를 안고 접견을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구속된 후 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를 낳아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인 저에게 미소 짓던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저는 '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해 왔나' 하며 남을 탓하던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됐고 죄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누군가에겐 피 같은 돈을 빼앗고, 소중한 희망을 망가뜨리고, 아픈 상처를 입힌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죄값을 다 치른 후 사회로 복귀하면 비난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저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더욱 당당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중에 제 아이가 커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떳떳하게 용서를 구하고자 이 마음 변치 않고 꼭 용서받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 글이 피해자들에게 닿지 않겠지만 먼 훗날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제 가족에게 외칩니다.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상처를 안겨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지금 이곳에서 미장 기능사, CNC 선반 자격증 취득 후 독학사 공부까지 하면서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사람으로 변해 아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부디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봐 주는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값 치르고 얼른 가족 곁으로 돌아가 멋진 아빠,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아빠가 곁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대신 아빠가 돌아가면 그때는 꼭 옆에서 지켜줄게.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 주렴. 다시 한번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적 연구를 통한 전임 교종의 도입방식에 관한 연구*②

천정환**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III.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 IV. 결어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20S1A5A2A01040851)

** 동서대 경찰학과 부교수(928jh@hanmail.net).
▶ 접수일(2021. 3. 17.), 심사일(2021. 4. 16.), 수정일(2021. 4. 19.), 게재확정일(2021. 4. 27.)

III.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그 결과를 아래 <표 2>와 같이 5개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 20개의 개념들로 나타내었다.

1. 연구결과

3) 전임 교종제 도입이 필요한가?

(2)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

기존의 비전임 종교위원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전임직으로의 종교위원인 교종제도의 도입이 군중처럼 교정시설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달리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임 교종 도입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종교위원제도의 혁신으로 가능

“물론 현재의 책임이 없는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문제점이 있기에 전임 교종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정문화의 역사나 오래된 관료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임 교종제도가 바로 도입되면 이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되고 관료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종교위원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욕이 없고 종교적 성취감이 있는 자가 위촉되기 위해 소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등 제도의 혁신이 있으면 됩니다(연구 참여자 #6).”

② 유급시간제 교종으로 대체 가능

교정시설에 군중처럼 풀타임 전임 교종제도의 전적인 도입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의는 일반 교도관처럼 전임 공무원이 된다면 또 다른 관료화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성향과 권력이 있는 성직자에 대한 교정 당국의 통제가 힘들기에 기존의 완전 무급제인 파트직 종교위원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관료화의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도록 유급제의 시간제 교종이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소수의 논의는 관료독점제의 문화적 문제점을

완전 전임 교종제도 도입에 대해 관료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 교정은 너무나 많은 관료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또 다른 전임 교종제도가 도입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전임직보다는 매일 나오지 말고 유급의 시간제로 근무하되 매년 성과를 보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제도가 더 나아요(연구 참여자 #6).”

4) 전임 교종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가?

(1) 채용형태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참여자들은 직급과 관점에 따라 채용형태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채용형태(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관한 의견조사에서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형태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성 확보, 신분 보장, 소속감 형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연구 참여자 #1, 2, 3, 4).

“지금 우리는 조리원, 청소원이라는 분들이 모두 민간계약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분들을 뽑아야 하고 하다 보니 소속감 자체가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떠날 거라, 그냥 대충대충 하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만약에 한다면 정직원인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연구 참여자 #1).”

“전문직으로 직원을 두고 채용해야 수용자들에게 교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2).”

“저는 신분은 보장하지만 재신임 절차가 1회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임용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재신임 절차를 거쳐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연구 참여자 #3).”

②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

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공무원 신분의 형태로 채용해야 한다는 다수 연구 참여자의 의견과 달리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공무원 형태로 채용되면 관료제화의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인건비 등 재정 부담 문제와 통제 문제 및 성직자의 특성 등의 이유로 민간인 신분으로의 채용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위 경력을 가진 분들이 제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과(연구 참여자 #7) 1년, 2년 등의 유기계약직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하자는 의견(연구 참여자 #5)으로 나뉘었다.

“저는 상주 종교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만 그 형태는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둘 다 좋지만 무기계약직이 더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 한다면 여러 관료제적 문제점이 나오고 기존 교정위원의 반발도 예상되는 데다 비용 부담이 크므로 무기계약직으로 하여 신분은 보장하되 그 비용은 국가와 종단이 부담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7).”

“저는 전임직으로의 직업공무원제 형태로 교종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직업공무원으로 된다면 교도소장이나 교도소에서 사실상 통제하기가 힘들고 사회복지과 등 기존 부서와의 갈등도 예상되고 종교 편향 문제도 예상됩니다. 직업공무원 형태는 물론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채용도 반대합니다. 반드시 관료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하되 1년 또는 2년의 유기계약직으로 하고 매회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해야 하며 별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무기계약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주면 됩니다. 다만 계약직 전임이 되면 복장은 자율로 정하게 하고 근무시간은 계약 때 정하도록 하되 원불교 같은 수용자 신도가 적은 경우는 오전 근무 등도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다만 봉급 등 비용은 국가와 종단이 나누어 부담하는 캐나다형이 타당합니다(연구 참여자 #5).”

(2) 채용형식에 대한 의견조사

① 추천제 형식이 타당

전임 교종제 도입 시 채용형식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추천제 형식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종교직의 특성상 시험의 부과가 곤란하고 또한 종교계의 자율성 보장, 군중과 다른 점 및 비용분담 명분 등의 이유로 공개채용을 하는 일반 교도관이나 군중사관후보생제도와 달리 추천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한다(연구 참여자 #2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

“일단 추천을 전제로 하고 어떤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을 통해 검증하기는 힘든 부분 같거든요. 종파별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추천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또 어떤 시험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여깁니다(연구 참여자 #3).”

“캐나다형과 같이 교단의 추천제에 의해 채용하는 게 타당합니다. 기독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감리교, 예장, 백석 등 다양한 교단 대표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교도소에 파송할 계약목사 등을 추천하면 법무부는 기본적인 심사만 해서 선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교회연합회 대표와 이에 관해 계약을 하면 되며 다만 파송목사 인원수의 배정에 대해 교단 내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파송목사의 배분은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교단의 재정력 등 영향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권력분립이 필요하므로 파송목사의 추천권은 교단연합회가 가져도 1년 뒤 재평가에 의해 부적격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에게 거부권을 주는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교단이 추천을 하므로 당연히 비용분담도 교단이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승진이나 직급의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연구 참여자 #5).”

② 공개채용 형식이 타당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종교직의 특성 등 여러 이유로 추천형식을 통한 채용이 타당하다는 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달리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형평성과 전문 능력의 검증 등이 필요하므로 공개채용형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천보다는 종교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므로 교도소에 배치되면 종교적인 부분만 해서 는 힘들거든요. 다만 선발할 때 복지라든지 상담에

대한 자격증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거나 메리트를 제공해 주는 게 좋고 채용시험에서도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교양과목은 폐지하고 교정학 등 전문과목이 들어가야 하며 채용직급은 6급은 너무 높고 너무 낮으면 가교역할이 힘들기에 7급 정도로 채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연구 참여자 #2).”

③ 추천제와 공개채용형식의 병행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채용형식에 대해 추천제와 공개채용제로 의견이 나뉜 것과 달리 성직자에 대해서는 추천제로 하되 특정 종파 출신이 아닌 종교 전문요원을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위해 공개채용해야 한다는 소수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정시설부터 시범적으로 성직자 상주제를 도입 하되 관련 종교계의 추천을 통해 충원하면 됩니다. 다만 성직자 상주제도에 앞서서 종교적 기반구축을 위해 사회복지과에 종파와 관계없이 종교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임용직급은 7-8급으로 하는 게 적당합니다. 이를 위해 교종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며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연구 참여자 #7).”

이 의견은 종교적 성향과 특정성이 분명한 성직자와 종파 출신과 관계없이 종교중립적인 종교 관련 전문가를 별도의 채용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교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5) 전임 교종제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 일반 교도관과 차별화된 응시연령의 필요성 인정

① 종교 업무의 특성에 부합

전임 교종이 도입된다면 응시연령을 현재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차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그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인생 상담, 종교교화 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하고 또한 가교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연구 참여자 #3, 5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

“아무래도 사회경험도 필요하고 일단 뭐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인생 상담이 가능하지 않나(연

구 참여자 #1).
 “수용자들이 굉장히 말도 현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연륜이 필요하고 또 종교위원과 직원들 간의 관계도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도 가능해야 합니다(연구 참여자 #2, 4).”
 “뭐 교도소 의사처럼 수용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으니 반드시 종교 경력이 있는 40세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종교적 특성상 정년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6).”

(2) 일반 교도관과 차별화된 응시연령의 필요성 부정

①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며 연령과 무관함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응시연령의 제한을 현재의 국가공무원과 같이 적용하지 말고 종교직의 특성상 차별화된 응시연령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달리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도 제시된바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형평성의 문제와 기존의 고령화된 종교위원제에 새로운 분위기 조성, 신구의 조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나이가 있고 경험과 연륜에 따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으나 또 요즘은 그 일을 배운 지식으로 하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젊은 사람이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도관들도 처음에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적용을 하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역할도 채워줍니다(연구 참여자 #3).”
 “응시연령의 하한선을 현재 국가공무원처럼 만 20세로 하면 됩니다. 일부러 응시연령의 하한을 따로 둘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한 응시하한연령의 결정은 국가보다는 교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성직자도 교도소에 필요하고 다양한 연령이 종교직에서도 조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연구 참여자 #5).”

(2) 장애인할당제의 필요성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장애인에게 응시자격을 주거나 장애인할당제를 실시하지만 아직 교도관채용에서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임 교종을 도입할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연구 참

여자 #1을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

① 필요성 인정

“전임 교종을 공무원이든 무기직이든 어떤 경우로 채용할 경우라도 교종은 보안업무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장애인도 교종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차별할 필요 없어요(연구 참여자 #6).”
 “장애인은 인권 차원에서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도소는 사회유사화원칙이 철저히 지켜질수록 좋으며 다만 교정시설에 파송할 목사의 자격에서 신체능력 등 구체적 사항은 교단에서 정하도록 하면 되며 국가가 미리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연구 참여자 #5).”

“장애인도 교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연구 참여자 #7).”

② 필요성 부정

“교도관으로 채용한다면 응시자격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여기는 특수직이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1).”

(3) 성별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현재 교도관 9급 채용시험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성별과 무관하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 업무의 특성상 성별분리채용으로 시행해 대부분의 교도관을 남성으로 채용하며 소수의 채용인원만 여성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① 성별제한 불필요

전임 교종이 도입된다면 일반 공무원처럼 응시자격에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별제한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형평성과 교계의 추세 등을 근거로 성별제한을 특별히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연구 참여자 #5, 6, 7).
 “교종제도가 도입된다면 여성도 국가가 명시적으로 차별할 필요가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를 예로 든다면 다만 교정시설에 교종으로 파송할 전임목사에 대해 여성목회자를 파송할지에 대해서는 교회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교계의 현실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교단이 해당 교정시설과 협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청송교도소와 같은 고위

험 교도소는 여성은 시기상조가 될 것입니다(연구 참여자 #5).”

“여성은 교종제도가 도입되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청주여자교도소는 물론이고 일반교도소도 보통 500명 이상이 수용된 교도소는 분계된 곳에서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여성 교종도 필요하기 때문이죠(연구 참여자 #7).”

② 성별제한의 필요성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교도소 업무의 특성상 교종을 교도관으로 임용할 경우에 성별제한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나타내었다.
 “교도소는 업무의 특성이 있어 교종이 교도관으로 들어온다면 성별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교도소는 예외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성별을 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연구 참여자 #1).”

2.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교정공무원 경력자들이 우리나라의 비전임 교종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혁신적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전임 교종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로 기존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의 효과와 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종교위원의 효과는 인정하지만 종교위원의 지나친 고령화와 비전문성, 위촉과정의 폐쇄성, 책임의식 부족, 보안과의 갈등, 파트직에서 오는 한계 등의 여러 문제점을 모든 참여자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위원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연구 참여자들 외에도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현상이었다. 지적되어온 종교위원의 비전문성, 폐쇄적 총원과 직원과의 갈등 등 활동의 문제점 및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임 교종제 도입논의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전임 교종이 도입되어도 파트직의 종교위원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종교교육형주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전임 교종만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종교위원들과 유기적 관계로 중

교교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위원들의 문제점들은 전임 교종제 도입이 시작되면 종교위원제도로 개혁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전문화, 개방화, 다양화와 성과, 연령 등에서 대표성의 제고로 나아가 한다.
 둘째로 교정시설에서도 군종처럼 전임 교종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의 갈수록 복잡해지는 종교적 욕구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고 현재 여러 문제점을 보이는 비전임 교종제도의 한계와 교도관 중심의 일반관료제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혁신적 방안으로 전임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임 교종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또 다른 관료화가 될 수 있어 현재 종교위원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또 다른 관료화의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는 유급시간제 교종이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모두가 전임 교종제 도입에 찬성하나 일부에서 관료화를 우려하므로 전임 교종제를 도입하되 관료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방안이 정교하고 세심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교정시설에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공무원 신분 또는 민간인 신분 중 어떤 형태의 채용이 타당하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다. 전임 교종은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논거는 전문성 확보, 소속감 형성과 권한 및 책임의식 확보 등이었으며 이에 반해 민간인 신분의 형태로 해야 한다는 논거는 관료제화의 우려, 재정부담 문제, 효율적 통제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면 도입방식에서 추천제와 공개채용제에서 어느 쪽의 채용형식이 타당하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종교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종교계의 자율성과 관련해 추천제 형식의 채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평성과 전문성의 검증 등을 위해 공개채용 형식이나 두 방식의 병행이 낫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채용형태와 관련해 공무원 신분의 형태로 전임 교종을 채용한다면 관료사회화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관료화의 질서와 문화에 종속되어 종교교정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고 또한 신분보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관료제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실적을 재심사해서 연임

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한다면 종교교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책임감이 저하되는 문제와 직업공무원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순수한 종교교회는 민간인으로 채용하되 종교교정행정은 종교직을 신설하여 성직자나 종교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민간인 교종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용형식에서 종교계로부터 추천제만을 할 경우 종단 내에서 교파 간 갈등과 자본화의 정도의 차이가 큰 한국 종교계의 특성상 권력화와 공정성의 문제와 유능한 성직자의 채용의 입직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종교계의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실적주의와 공정성의 담보를 위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교계로부터 추천받은 뒤에 종교교화와 관련되는 전문과목을 통한 시험제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종교교화와 전혀 무관한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교양과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전임 교종제 도입 시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논의에서 먼저 응시연령을 일반 교도관과 달리 원숙함과 경험이 필요한 종교직의 특성상 3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형평성 문제와 신구의 조화 등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일반 교도관과 차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응시자격 논의에서는 사회유사화원칙, 평등원칙과 업무 능력 등을 근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지만 교정시설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성별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교계의 추세, 여성수용자의 존재 등을 근거로 여성에게도 전임 교종의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따라서 전임 교종제 도입 시 연령, 성별 등에서의 응시자격 제한은 원숙함이 필요한 종교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교도관 응시자격보다 상향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년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성별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되 구체적인 것은 종교계의 자율성과 교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할당제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도 사회유사화원칙과 교정시설의 특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할당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V. 결어

제1공화국 때의 전임 교종이었던 형목제도는 정치적 성격과 기독교 독점적 성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제2공화국 이후 폐지되어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이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를 지금까지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무보수의 파트직으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종교위원제도는 인적 측면, 활동 측면, 제도적 측면 등에서 여러 고질적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 대안으로 전임 교종제 도입운동이 학계와 종교계에서 제기되어왔고 법무부도 2009년에 전임 교종제 실시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임 교종제의 입법적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종교계가 부족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교정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현장의 맥락을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전임 교종제의 실질적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비전임 교종의 문제점에 근본적 대안으로 전임 교종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 참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입방식에 대해서만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임 교종 도입의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므로 교정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당국은 종교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전임 교종제 도입에 관한 정책 의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3대 종교 위주의 교종을 추진한다면 평등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논의 시에 다양한 종교의 교종과 이로 인한 비용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 전임 교종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기존의 종교위원제도는 존속되어야 할 것이며 전임 교종제 도입과 관계없이 종교위원들의 역량강화교육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교정 NEWS

교정 10월호

전국 지방교정청장 회의 개최



- 일시·장소**
 9. 3.(금) 14:00, 교정본부 회의실
- 참석 대상**
- (교정본부) 교정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 (지방교정청 등) 각 지방교정청장(4명), 교정연수부장
- 회의 내용**
- 소속 기관 의료과 인력지원 실태 및 대책
 - 기피부서 및 고난도 근무개소 지원방안 등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간담회



- 일시·장소**
 9. 9.(목) 09:30, 국회 의원회관
- 참석자**
- (법무부) 법무부장관, 복지과장 등
 - (LH) LH 사장, 균형발전본부장 등
- 주요 내용**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 등



2021년도 교도작업 제안 공모



- 제안 대상**
- 교도작업 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항
 -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보건 위생, 작업환경 개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공모 일정**
- 응모(제출) 기간 : '21. 9. 6. ~ 11. 5.
 - 우수 제안 추천 : '21. 11. 15. ~ 11. 17.
- 공모 대상**
- 교도관, 수용자(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
- 포상 규모**
- 750만 원
 -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상(3명) 50만 원

대구교도소 이전 관련 업무협의



- 일시·장소**
 9. 9.(목) 11:00, 대구시청·대구교도소 신축시설
- 참석자**
- (법무부) 교정본부장, 복지과 교정관 등
 -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 주요 내용**
- 대구교도소 이전 현안 관련 대구시청 방문 및 이전 시설 점검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9월 15일 추석을 맞이해 평화의 집, 좋은 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총 16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 인원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부 또는 별도 건물에서 위문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대체복무제도 실시

대체복무요원 43명이 9월 17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다.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의 기간 동안 구치소 내 대체복무시설에서 합숙 생활을 실시한다. 향후 10월 중 추가적으로 45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배치되며 신체 조건, 기술 자격 및 특기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 실시

안양교도소는 9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안양교도소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이해하고 반부패·청렴 의식을 향상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가족사랑 선물 지원 행사 실시

수원구치소는 9월 13일 두란노 어머니 학교의 지원을 받아 불우수용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선물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총 22개 가정에 추석 선물과 함께 가족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카드를

동봉해 전달했다. 앞으로도 수원구치소는 두란노 어머니 학교와 함께 불우수용자에 대한 행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임경민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추석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소망의 집 등 5개 기관)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 인원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부 또는 별도 건물에서 위문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승진 및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인천구치소는 9월 13일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안과 교감 임권의 승진 및 복지와 공업주사보 남종식의 전입 신고식을 개최했다. 최규철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수용자 물품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9월 16일 교정협의회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사과 2,000개, KF94 마스크 20,000장, 호박설기 2,000개를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은 추석을 맞이해 수용자들이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전 수용자에게 지급됐다. 류기현 소장은 “기증 물품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추석을 맞이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마도면, 송산면의 어르신들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2017년부터 마도면과 송산면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별로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분기마다 인근 6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전태수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교도소는 9월 7일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인 상록의료재단 화정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동윤 소장은 “화정병원과 업무협약으로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 수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화정병원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위원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9월 10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회의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직원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가 미흡하기 쉽고, 회의 안전에 대한 토의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직원들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며 대면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토의 주제가 12개나 나왔으며, 이에 대한 의견 및 결과 사항을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9월 17일 추석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인 '에델마을', '행복한 집' 및 취약가정을 돕기 위해 결연을 맺고 있는 7개 가정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

문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춘천교도소는 9월 13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금은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춘천교도소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전달했다. 김일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아낌없는 나눔과 사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오늘부터 우리는’ 캠페인 동참

원주교도소는 9월 15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오늘부터 우리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박진홍 소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포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진정한 녹색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강릉교도소는 9월 15일 추석을 맞아 강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4곳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김경화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강릉교도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정규 임용 직원 축하 행사 개최

영월교도소는 9월 8일 시보를 마치고 정규 임용된 직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청사 전광판에 축하 문구를 게시하고 축하 엽서와 꽃을 전달했다. 김현우 소장은 “이번 축하 자리를 통해 정규 임용된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수용자 가족 화상 접견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9월 18일 추석을 맞이해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족 화상 접견을 실시했다. 이번 화상 접견은 평소 가족들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접견이 어려웠던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직원 격려 추석 선물 증정

수원구치 소평택지소는 9월 16일 조리원, 청소원, 방호원 등 공무직 직원 모두에게 추석 선물을 증정했다. 이번 선물은 평소 성실한 근무 자세로 원활한 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실시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원격의료시스템 개통 및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9월 16일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과 원격의료시스템 개통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구축된 원격의료시스템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9월 16일 추석을 맞이해 청사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한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수용자 물품 기증

대구교도소는 9월 1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약밥 2,2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약밥은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해 명절의 온기를 나눴다. 오광운 소장은 “명절마다 잊지 않고 수용자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교정위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2021년 법무부 청렴 라이브 참여

부산구치소는 9월 10일 '2021년 법무부 청렴 라이브'에 참여했다. 김영식 소장은 “청렴 라이브를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이자 갖춰야 할 덕목인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청렴 정책을 숙지하는 모범적인 '청렴 부산구치소'가 되자”고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9월 1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떡 1,400개를 기증받았다. 장종선 소장은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호

반부패·청렴 직장 교육 실시
창원교도소는 9월 15일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청탁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부산교도소는 9월 13일 신규 직원인 김명욱 방송통신주사 시보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수연 소장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산교도소에 반드시 필요했던 인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9월 13일 신규 직원인 공업서기보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철민 소장을 비롯해 각과 과장들만 참석했다. 김철민 소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실시
진주교도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의 의의 확산을 위해 9월 14일 민원실에서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청렴은 지키GO!! 부패는 버리GO!!’란 문구가 인쇄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청렴 규정을 요약한 리플릿을 배부하며 청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수용자 물품 기증
대구구치소는 9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및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로부터 사과 1,000개를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은 추석을 맞아 이해 수용자들이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조직문화 개선 교육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9월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두드림에듀센터 김은정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차별 및 고정관념 여부 등의 조직문화를 점검해 성 평등 조직문화 실천을 목표로 실시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9월 16일 추석을 맞아 기관 소재지인 풍산읍 상리3리 마을회관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된 지역사회 이웃을 보살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황지훈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9월 13일 신규 직원인 성충목 의리기술키보 시보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배경석 소장은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길 바라며,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9월 14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베다니성화원, 한마음지역아동센터, 김천행복한요양원 등 3개 기관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박동수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사랑을 느끼고 명절만큼은 풍요롭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 위문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9월 1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백설기 700개를 기증받았다. 교정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수용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마음을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비대면 청렴 행사 실시
울산구치소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청렴 행사를 실시했다. 최재우 소장은 “청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교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경주교도소는 9월 2일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와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안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수용자와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됐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수용자 물품 기증
통영구치소는 9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KF94 마스크 5,00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차광식 소장은 “기증 물품을 통해 수용자들이 사랑과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백지정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밀양구치소 ‘미르피아 보라미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9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 매월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적립된 기금으로 관내 마을회관과 지역주민을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아동 위탁보호시설 신망원과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에 성금을 후원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9월 16일 추석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인 희망재활원과 노인회관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안영삼 소장은 “마을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승현

모범직원 시상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9월 1일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근무하는 정의정 교감을 모범직원으로 선정하고 모범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의정 교감

은 수용 정보 분석을 활용한 고위험군 재범 위험성 평가 요인을 분석해 정밀분류심사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에 활용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직원에 선정됐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대전교도소는 9월 15일 추석을 맞아 무연고 수용자 묘지가 있는 ‘시립공동묘지’를 찾아 묘지 관리 상태를 살펴봤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구)대전형무소를 방문해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잘 보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청주교도소는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을 맞아 희망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과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이웃 7가정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 위문금은 청주교도소 봉사동호회 ‘희심길 봉사단’ 모금회비와 전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모은 것이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천안교도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방문했다. 아동복지시설 ‘하늘’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반딧불마을’, 지적장애보호시설 ‘사랑과 평화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 성금을 전달해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보안정책담당장 정책현장 방문
교정본부 최제영 보안정책담당장은 9월 7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방역 실태 확인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의료과 및 보안과 사무실을 방문해 지속되는 코로나19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공주교도소는 9월 14일 추석을 맞아 공주교도소에서 관리하는 함장묘와 무연고 분묘를 벌초하고 영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성묘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대체복무팀 지역 봉사 활동 실시
충주구치소 대체복무팀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구치소 주변 환경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무성히 자란 수풀로 인해 통행하기 불편한 인도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홍성교도소 / 교사 정조원

수용자 가족사랑 이벤트 실시
홍성교도소는 9월 8일 추석을 맞아 수용자들에게 안정된 수용 생활 분위기 조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수용자 가족사랑 이벤트를 실시했다. 수용자들이 부모님에게 쓴 효도편지와 사진을 함께 각 가정에 전달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9월 17일 추석을 맞이해 아동 공동생활가정 3곳을 방문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직원 격려 추석 선물 증정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추석을 맞이해 전 직원에게 롤케이크를 선물했다. 장승구 소장은 "이번 추석 선물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는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수용자 물품 기증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9월 1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추석을 맞이해 수용자를 위한 격려 물품(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떡, 돼지고기 등)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격려 물품은 추석에 맞춰 수용자에게 전달했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불우수용자 가족 지원 기부 행사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9월 16일 추석을 맞이해 허부경(前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이 기부한 3,000만 원을 광주지방교정청 소속기관 9곳의 불우수용자 및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광주교도소는 9월 17일 추석을 맞이해 고려중학교의 불우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의 온정이 필요한 이웃에게 넉넉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인근 학교의 불우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9월 14일 추석을 맞아 장애인복지시설인 '소화진달네집'과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직원들은 생활지원금 및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전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순천교도소는 9월 17일 추석을 맞아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마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형창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목포교도소는 9월 15일 추석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엘림복지타운, 소전원, 소외이웃 등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지원과 관심에 정말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직원 건강검진 실시

군산교도소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직원들의 편의성을 위해 협약을 맺은 영등포병원 검진센터의 출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출근 전이나 휴게시간 등을 이용해 검진을 받았으며, 검진센터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제주교도소는 9월 8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악화된 혈액 수급 상황에서 실시해 그 의미가 더 깊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김준환

추석맞이 위문 활동 실시

장흥교도소는 9월 15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종곤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택트 봉사 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수용자 물품 기증

해남교도소는 9월 16일 해남군청으로부터 사과 30박스를 기증받았다. 사과는 수용자들에게 특식으로 지급해 추석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된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퇴직 교도관 명판 제막식 개최

정읍교도소는 9월 16일 퇴직 교도관 명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정읍교도소 '교정발전협의회'에서 발의한 퇴직 교도관 명판은 현직 교도관의 소속감 고취 및 근무 의욕 진작을 위한 취지로 제작됐다. 명판은 직원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보안과 직원 휴게실에 설치했다. 앞으로 퇴직 교도관의 이름은 정읍교도소 역사와 함께할 것이다.



소식이 오다
● 모범 공무원 소개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박성진**

박성진 교위는 1999년 임용된 후 약 22년 동안 장기근속 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른 직원보다 앞장서 근무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수용동 근무자로서 신뢰받는 조직 분위기를 이끌고, 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한층 더 나은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2021년 3월경 직원 확진자 발생 당시 격리 수용동 최일선에서 격리자에 대한 수용 관리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대구구치소 교위 **고민정**

고민정 교위는 2006년 임용된 후 15년간 수용자의 수용 처우 및 교정교화에 헌신해 오며 수용 관리 업무에 남다른 성과를 이뤄 내고 있다. 또한 고민정 교위는 2021년 8월 24일 낮 12시 15분경 입소 절차를 위해 입출소실에서 수용자의 신체 및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던 중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주사기 마개와 밀봉된 투명 비닐에 보관된 흰색 투명 가루를 발견했다. 이를 신속히 보고해 시설 내 금지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정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홍성교도소 교사 **홍성택**

홍성택 교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인 입소 시 통역을 담당하며 수용자 간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 해소를 줄이고, 내국인의 중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등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 생활 및 교정교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관복 임의 제작·변조 및 수용자 간 수수 행위를 발견했으며, 지난 7월에는 수용동 거실 검사 시 싱크대 밑에 은닉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발하는 등 원칙적인 근무 자세로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제주교도소 교사 **박광수**

박광수 교사는 2015년 임용된 후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교정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현재 의료과 진료 보조 담당자로 지난 8월 6일 낮 12시경 수용자 바이탈 측정 시 빈맥 증상이 확인되자 바로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의료과장에게 보고해 즉시 응급실로 긴급 후송함으로써 수용자가 부정맥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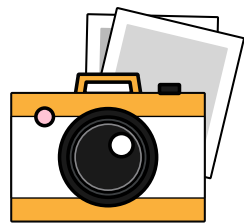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야구공
-  통조림
-  생선
-  뼈다귀
-  리본
-  그릇
-  도너츠
-  컵
-  치즈
-  오리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 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그리십시오

#안전한일상 #희망그림

여성가족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hope_painting2021 에서 확인해주세요.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폭력 피해 상담 1366(지역번호+1366)/해바라기 센터 1899-3075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02-735-754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제76주년 교정의 날

2021. 10. 28.(목)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2002년에 법정기념일(10. 28.)로 제정됐습니다.

매년 교정의 날에는 교정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확산시키고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격려하고자
‘교정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교정가족의 투고를 모집합니다!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대체복무요원 등 교정가족들의 전문 지식과 교정교화 현장의 생생한 활동을 공유해 주세요.
선정된 교정가족의 글을 월간 <교정>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교정가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메일 보내는 곳 : 교정본부 담당자(khj7778@korea.kr) / 월간 <교정> 편집팀(correct2015@naver.com)